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제970호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이후 5개월새 규제 23건 증가
사내유보금 과세 등 기업활동 부담되는 '대못' 늘어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 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기준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또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논의됐던 52개의 현장 건의 과제 중 해결된 과제가 14건에 불과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결과제 또한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허용 등 1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 질적으론 미미한 사안에 불과하다.

이 밖에 규제개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25건, 국회 법안 심의 중인 사안은 7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6건이다.

청와대는 애초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회의 일정을 미룬 상태다. 규제정보포털도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돌연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그간 규제개혁 실적이 미흡해 회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고용형태 공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확대 등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대못' 규제들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규제 철폐 노력 외에 핵심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겉핥기식이 아닌 확확 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처럼 제도 속에 뿌리박힌 규제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규제의 총량을 억제 외에도 수도권 투자규제, 노사규제, 기업규모별 규제, 영업활동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질적 정책이 병행돼야 경제와 기업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행정규제 네거티브 원칙 적용
규제개혁신문고 설치 법제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당국자가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또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해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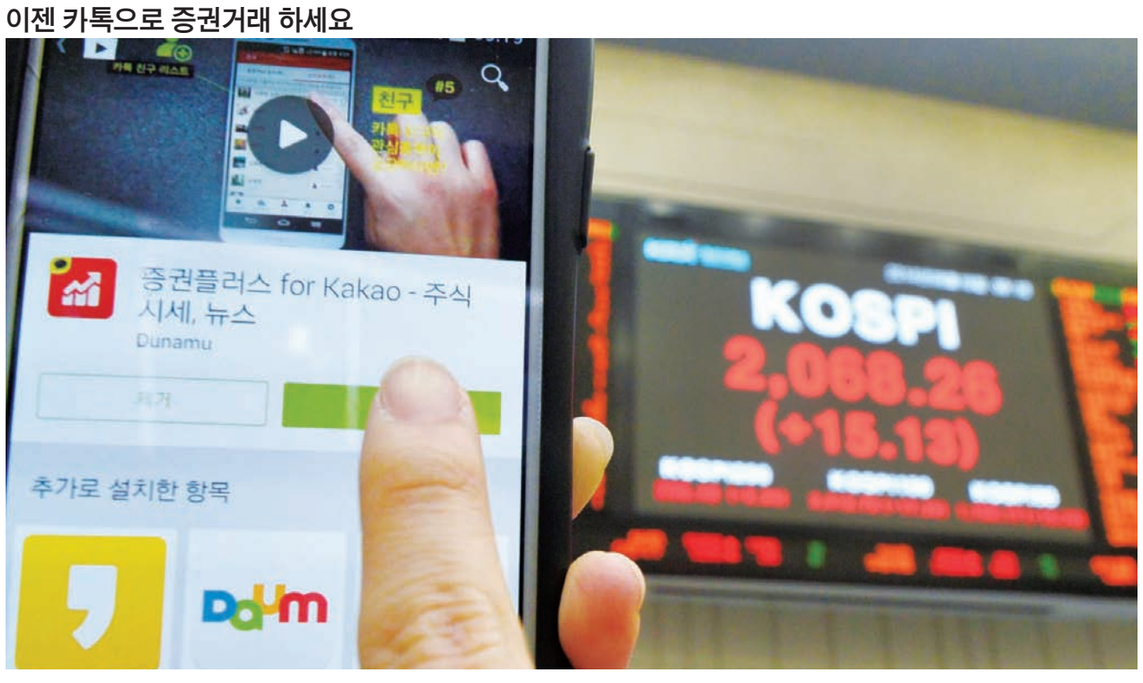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 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 근로자 수 10만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상영 기자 sypark@

이젠 카톡으로 증권거래 하세요



국내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한 '증권플러스 for KAKAO'(이하 증권플러스)가 18일 증권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 주식 거래 서비스는 '증권플러스 for KAKAO' 앱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투자정보 페이지를 통해 증권사 및 친구들과 교류가 가능하고, 친구들끼리 관심종목 공유와 친구에게 증권 플러스 포 카카오를 추천할 수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은 한 시민이 스마트폰에 '증권플러스 for KAKAO' 앱을 설치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현대車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땐 인건비 年 1조 증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12% 수준

현대자동차 직원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인건비가 연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은 현대차가 중국 충칭(重慶)에 추진 중인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 설립 비용과 맞먹는다.

19일 현대차의 2013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상승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연간 45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 1억원의 연봉을 받는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연봉의 35%가량을 상여금(통상급의 750%)으로 지급받는다. 55%가량은 통상급이며 10~20% 정도가 각종 수당으로 채워진다. 상여금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봉 1억원 기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오른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70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4000억~45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대차가 물꼬를 트면 파급은 커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부품 계열인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뿐 아니라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모든 계열사의 통상임금 확대가 불가피하다. 삼성증권은 이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인건비가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1조원은 지난해 현대차 임직원의 총급여 5조9681억원의 16.8%, 연결기준 영업이익 8조3155억원의 12.0%를 각각 차지하는 수치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정규직 채용 대상을 35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근속을 정규직 채용 때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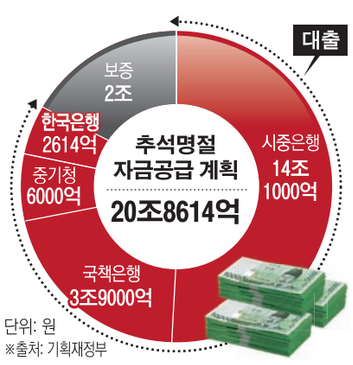
정부, 中企·서민에 추석자금 21조 푼다

작년보다 4.3조↑ 역대 최대
28개 성수품 물가 집중관리

정부는 38년 만에 이른 추석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21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추석 민생 지원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또 주요 농수축산물 등 28개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교통·가스시설과 태풍,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16조6000억원에서 올해 20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에서 3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2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역 신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도 작년 7000억원에서 올해 1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전통시장 1곳당 1억원 이내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0% 특별할인 기한도 이달 말에서 할인판매 한도 1000억원이 소진되는 다음달 초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하는 등 서민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전민정 기자 puri21@

알립니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하라' 최경환 경제팀의 과제는…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모색 토론회' 내일 은행회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 최운열 서강대 교수 |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2기 경제팀의 과제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뇌사 상태인 실물경제를 살려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최경환호는 '멈춰버린 기적'을 새로 쓸 수 있을까요?

가혹하리 만큼 벅찬 임무임이 틀림없지만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기적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 가는, 보다 진화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새롭게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오는 20일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 주제로 진행됩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출범과 맞닿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본지에 연재중인 동명의 기획시리즈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론회는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가 주제문을 발표한 뒤 패널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패널로는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와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 대표적 경제통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년 8월 20일 오후 2~4시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이투데이
- 후 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 문 의 : 토론회 사무국(전화 02-799-6784, 2655)

Graphic NEWS

강남구 건보료 체납액 1위
32억5100만원(1125건)
서울시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액



강남구, 건보 체납 '금메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642가구 중 구별로는 강남구가 1125건(7.7%)으로 체납 가구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bomnal@

10대그룹 강남 토지·건물 평가액
30조8630억원(30만7900평)
그룹별 강남3구 소재 부동산 평가액



1위 삼성(12조6080억)
2위 롯데(9조510억)
3위 신세계(3조5760억)
4위 현대차(1조6380억)
5위 GS(1조2930억)
(단위: 원)

삼성, 강남 땅부자 '금메달'

국내 10대그룹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보유한 토지 규모는 101만6110㎡(30만평)로 평가액은 17조30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재벌닷컴이 15대 그룹 중 총수가 있는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남 노른자위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평가액은 6월 말 기준 30조863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평가액이 12조60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효진 기자 js62@



Market 화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배당의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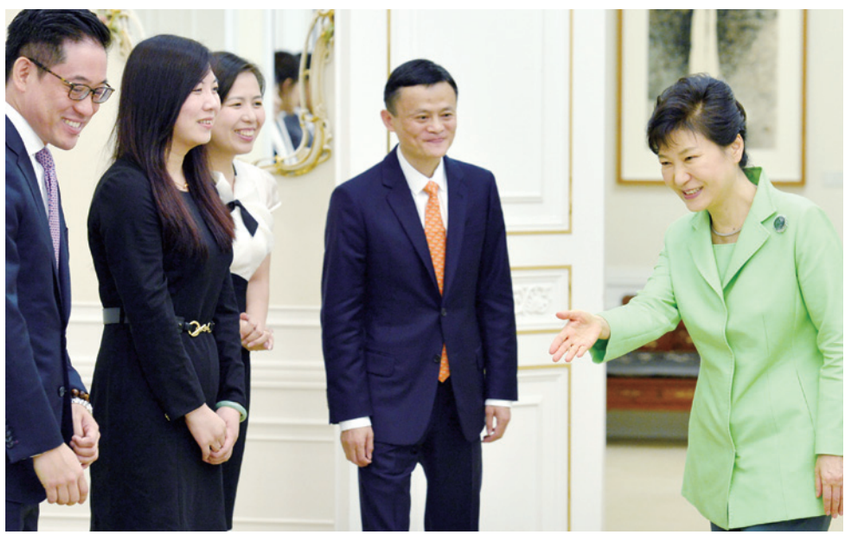
한찬희 대표 ▶2



이기권 장관 ▶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윈(오른쪽 두번째) 알리바바그룹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최경환 부총리 마윈 알리바바 회장 왜 만났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통해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간단한 심사만으로 입점 허용
마 회장 "청년인력 100명 초청"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각각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을 접견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차례로 나선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과 청년층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알리바바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알리바바는 2007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80%를 달성한 이래 7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 250조원, 종업원 2만3000명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무역협회의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의 등록 상품을 알리바바의 'Tmall'에 자동 연계 등록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전자상거래에서 제품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9월부터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인증서비스(K+ 인증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알리바바가 간단한 심사만으로 입점을 허용하면, 한국의 중소기업과 알리바바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마 회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마 회장은 한국의 우수한 청년 인력 100명을 초청해 교육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 계획은 중소기업과 한국 청년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관계부처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때 체결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 MOU, 한중 영화 공동제작 협정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기 위해서는 방송 등 문화 분야의 규제완화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해외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알리바바가 중국 측의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청년들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최고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한 알리바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수요가 큰 온라인게임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도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 회장은 양국 간 전자상거래를 위해 물류, 창고 등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마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제부총리와 면담 시 논의해 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 회장과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류 등으로 인한 중국 내 한국 제품의 수요 증대가 알리바바그룹과 한국 기업 모두에 윈윈(win-win)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고객 신뢰가 우선" 주진형의 고해성사

〈한화투자증권 사장〉

"과다한 주식매매로 수익률 떨어져
전담 관리자 없을때 수익 더 높아"
수수료 중심 영업 성찰 파격 보고서
영업방식 고객 관점으로 개편 나서

'지난해 한화투자증권의 주식 거래 고객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과다한 주식 매매로 투자자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투자증권이 증권사의 수수료 중심 영업 형태에 대해 성찰하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부 기밀로만 여겨지던 이 보고서는 유출된 것이 아닌 '고객 신뢰 회복'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나선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결단으로 공개된 것이다. 스스로 '치부'를 드러낸 것.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8일 '회전율-수익률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작년 자사 고객 5만 3000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주식 매매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세금 등의 거래비용이 상승하며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증권사 영업방식에서 영업전담 관리자가 있는 오프라인 계좌수익률보다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경우 수익률이 높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도 내놨다. 이는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불필요한 거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자문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주 사장이 스스로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결과를 공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증권업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 고객 신뢰 회복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 사장은 "전담 관리자가 있는 고객의 수익률이 더 나쁜 것은 내부적으로도 충격적이었다"며 "이것을 외부에 공개할 것인가를 갖고 경영진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우리의 치부를 우리 손으로 직접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 사장이 증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투자증권이 올해부터 영업방식을 고객 관점으로 과감하게 개편했기 때문이다.

주 사장은 이미 지난 5월 "증권사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잦은 주식 매매를 유도하곤 했다"며 "심하게 말해 수수료만을 위한 장사를 했다고 비난받아도 떳떳하게 변명하기가 궁색할 정도였다"고 강도 높게 증권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한화투자증권은 △과다한 주식 매매에 대한 실적 불인정 △매매수수료 기준으로 지급하던 개인 성과급 폐지 △리서치센터의 운영 개편 △잘 아는 상품만 판매 중심으로 영업방식을 개편했다. 또한 매수 보고서 일색이던 증권업계에서 중립 및 매도 이하 투자의견 비중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 사장은 "고객을 위한 영업이 아니라 회사나 영업직원을 위한 영업 행태를 당연한 것처럼 해 왔다"며 "증권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증권사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 중심 영업방식 개편은 이제 시작"이라며 "변화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가 증권업계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찬희 "바이클론즈로 '또봇' 열풍 잇는다"

〈영실업 대표〉

바이크+클론 합성어…애니메이션 공개
자동차 변신 '또봇' 이후 2년만에 탄생
매출 1000억 목표…완구 한류 만들 것

지난해 장난감 '또봇' 열풍을 일으켰던 영실업이 '제2의 또봇' 만들기에 나섰다. 한찬희(사진) 영실업 대표는 18일 '바이클론즈'라는 새로운 장난감을 출시하고, 글로벌 완구 브랜드로의 성장 포부를 밝혔다.

영실업은 이날 변신 로봇 완구 바이클론즈와 관련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다. 바이크와 클론의 합성어로 이뤄진 바이클론즈는 영실업이 변신 자동차 로봇인 또봇 이후 2년간 여러 파트너 업체들과 고민하며 탄생시킨 변신 로봇 완구다.

한 대표는 "또봇은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이 완구 캐릭터 시장에서 성공한 첫 사례"라며 "해외 진출보다 국내 어린이에 맞춰 제작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먼저 알아봐 줬고, 그 결과 현재 가장 사랑받는 한국형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영실업만의 사업 노하우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제작하고, 여기에 맞춰 완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완구 개발에 대한 교감을 줄여 시너지창출에 제한적이라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었다.

한 대표는 "완구를 먼저 개발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니 각각의 완성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완구를 먼저 만드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변화는 완구산업이 전통 제조업에서 콘텐츠 제작이라는 창의 업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봇이라는 캐릭터 하나의 성공이 아닌, 국내 완구시장의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한 대표는 자부심을 가졌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영실업은 최근 동남아 시장에 또봇 제품과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수출할 수 있었다. 영실업은 싱가포르·대만·필리핀 등 3개 국가의 주말 프리타임대 방송 시간을 확보하며, 현지 어린이들에게 또봇으로 한류를 전파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바이클론즈의 올해 매출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영실업 매출은 76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000억원까지 목표를 확대했다"며 "바이클론즈 제품 매출은 100억원을 목표로 또봇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 시장 안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후원합니다.

"끊임 없이 담배를 조립하던 작은 손이…"



"이젠 책을 들고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온
3만원의 기적

5살 때부터 담배공장에서 일했던 아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던 11살 모슈미는

지난해부터 한국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의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1 해외아동결연으로
한 아이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후원신청전화 1599-0300 (매월 3만원)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해외 빈곤아동 1명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학비, 교과서, 학용품, 교복, 건강검진, 예방접종, 위생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은행권 '34조 돈보따리' 푼다는데…中企는 "풀면 뭐하나"

추석자금 역대 최대규모 방출

은행들이 보릿고개 속에서도 추석 특별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풀리는 돈만 34조원에 달한다. 보신주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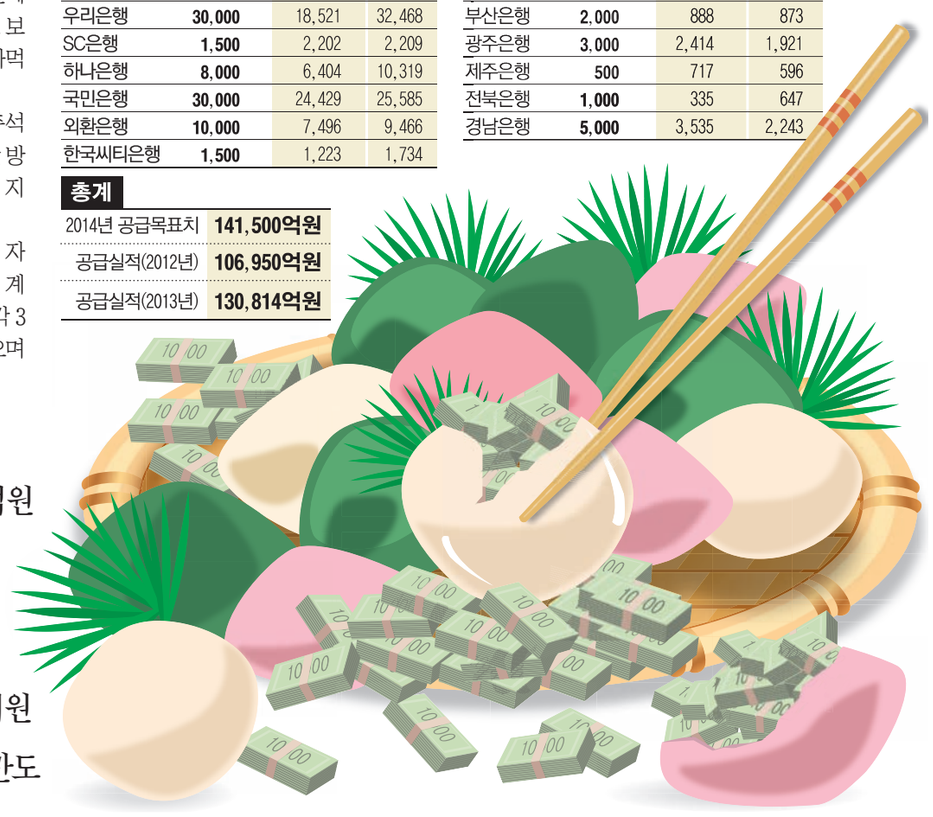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추석 때 7조5000억원의 자금을 풀어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은 역시 6조5000억원을 추석 중소기업 지원에 편성했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으로 신규 자금 지원 3조원, 만기 연장 5조원 등 총 8조원의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3조원을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으로 지원키로했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2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 추석자금 공급 계획 (단위: 억원)

은행명	2014년 공급목표치	공급실적(2012년)	(2013년)
농협은행	20,000	9,412	11,496
신한은행	25,000	24,980	27,942
우리은행	30,000	18,521	32,468
SC은행	1,500	2,202	2,209
하나은행	8,000	6,404	10,319
국민은행	30,000	24,429	25,585
외환은행	10,000	7,496	9,466
한국씨티은행	1,500	1,223	1,734
수협중앙회	1,000	1,817	986
대구은행	3,000	2,577	2,329
부산은행	2,000	888	873
광주은행	3,000	2,414	1,921
제주은행	500	717	596
전북은행	1,000	335	647
경남은행	5,000	3,535	2,243

총계	
2014년 공급목표치	141,500억원
공급실적(2012년)	106,950억원
공급실적(2013년)	130,814억원



우리銀 총 8조·KB금융 7조5000억원
지방은행도 대규모 특별자금 편성

저금리에 수익성 악화 '속앓이' 속
보신주의 질타로 '울며 겨자먹기' 지원
'관계형 금융' 강조하는 정부에 불만도

신용도 낮고 담보없는 업체엔 '그림의 떡'
자금규모는 작년보다 26% 늘어 환영
"다방면으로 기업 평가해 지원해야"

올해 2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석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도 일선에선 중소기업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과거 추석 때마다 진행됐던 정부의 '조단위' 자금지원이 실제 중소기업들에겐 실효성이 크지 못했던 터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인식이 파다하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추석자금지원 발표에 중소기업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다. 자금지원 규모가 전년의 16조6000억원보다 26% 증가한 20조9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은 물론 일반은행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월공단의 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심한데, 정부가 특별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린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최근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어서 영세한 업체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자금 지원 분위기는 환영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중소기업들도 '뜨뜻미지근'한 입장이다. 특히 추석 때마다 심한 자금 압박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자금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고 효과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김포 소재의 한 비철금속업체 A대표도 최근 추석을 앞두고 자금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납품업체를 돌며 최대한 추석전 대금 결제가 이뤄지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A대표는 정부의 추석특별자금 지원에도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는 "거래 업체에선 추석 전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금 상황이 빡빡해서 직접 돌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다고 해도 우리 같은 영세기업들은 사실상 혜택 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대출을 받으러 금융기관을 찾는 중소기업들은 높은 문턱을 경험한 채 쓸쓸히 돌아오는 일이 태반이라는 지적이다. 반월공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보통 때와 같이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가 없이는 대출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한 영세기업 대표도 "경영상 급하게 돈을 막느라 신용도가 낮아졌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대출 자체가 힘든 경우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추석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생색내기용' 혹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내놓는다. 자금 지원 규모만 늘린 채 여전히 혜택의 대상은 '신용도 높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신용도와 담보에 한정된 지원이 아닌, 여러 각도로 기업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지방은행들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대규모 추석특별자금을 편성했다. 부산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한가위 나눔 특별대출을 출시했으며 경남은행도 추석특별자금을 5000억원 지원한다. 대구·광주·전북은행이 각각 3000억원, 제주은행은 500억원의 특별자금을 푼다.

시중, 지방은행에서 34조원 가량의 추석 특별자금이 풀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규모를 좀 더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표정은 밝지 않다. 자신들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순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해 수익성 악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2.48%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연 2.75%로 지난달보다 0.02%포인트나 내려갔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순이자마진(NIM)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올해 추석 자금지원 규모를 늘렸다"라며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최근 은행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추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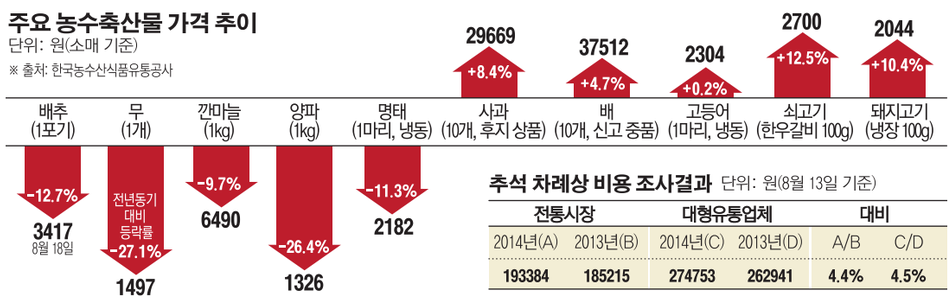
이어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무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신주의를 타파하라며 '관계형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B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관계형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황을 잘 모르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한다"며"기업금융 담당자 1~2명이 1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1년에 한번 CEO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38년만에 이른 추석…식탁물가 기상도는

주요 농수축산물 가격 추이
단위: 원(소매 기준)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결과 단위: 원(8월 13일 기준)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비	
2014년(A)	2013년(B)	2014년(C)	2013년(D)	A/B	C/D
193384	185215	274753	262941	4.4%	4.5%

농수산물 '안정'…한우값은 오를 듯

38년 만에 가장 빠른 추석에도 농수축산물 공급 여력이 충분해 올해 차례상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초부터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면서 본격 출하기를 맞는 사과, 배 등 일부 농산물과 사육두수가 감소한 한우값은 다소 오름세가 전망된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소매가격 기준, 배추 1포기 값은 341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나 떨어졌다. 무(1개)도 27.1% 하락한 1497원을 기록했다. 깐마늘(1kg)과 양파(1kg) 역시 각각 1년 전보다 9.7%, 26.4% 값이 내렸다. 냉동 고등어값은 1마리당 2304원으로 같은 기간 0.2% 소폭 증가에 그쳤고 냉동 명태(1마리)는 작년보다 11.3% 가격이 떨어졌다.

올해는 날씨가 대체로 좋아 농산물의 작황이 좋고, 파종 시기도 빨라 태풍 등 기상이변이 없을 시 충분한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수산물도 갈치와 오징어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고등어와 명태의 성어기가 최근 시작되면서 공급 물량에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석(9월 8일)이 예년에 비해 일러 사과, 배 등의 출하 시점 역시 앞당겨진 만큼 수요가 몰릴 경우 일시적인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곡물과 과일 출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8월 말 9월 초에 집중된다는 점도 수급 불안 요소다.

특히 한우는 2011년 한우값 폭락 이후 재작년부터 한우의 사육두수가 점차 줄고 있는 데다 돼지나 오리, 닭 등과 달리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값이 오름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T에 따르면 한우갈비(1등급, 18일 기준) 100g의 평균 소매가격은 4449원으로, 한 달 전 평균가격(4381원)보다 1.6%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4145원)보다 7.3% 가량 올랐다. 3등급 중품 가격(2700원)도 1년 전에 비해 12.5%나 상승했다.

다만 올해 들어 초강세를 보였던 돼지고기 가격은 이달 중순 이후 하락 반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겹살(냉장중품) 100g은 2044원으로 1년 전보다는 10.4% 올랐으나 일 주일 전(2051원)과 한 달 전(2192원) 평균가격에 비해 각각 0.3%, 6.7% 떨어졌다.

전민정 기자 puri21@



“현대차, 고용생태계 바꿔라”
이기권 장관, 임단협에 경고
〈고용노동부〉

노사, 그동안 ‘편한 길’ 찾다
통상임금 이견 끝 결국 파업
고용시장 간접고용 늘어
하도급 근로조건 차 심화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노사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편한 길’에만 안주하는 노사를 지적하며 파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현대기아자동차 노사가 그동안 ‘편한 길’만 찾아왔다”며 “현대차 임단협 교섭은 국가 차원에서 고용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파업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3~4년 뒤 정년 60세에 도달해 은퇴인력이 나오는 자리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고, 국내 공장도 증설돼 생산현장에 입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 기대”라며 “이번 교섭 파행에 대해 노사 양측이 각성하고, 절실하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0년간 고용시장에 하도급,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원청과 하도급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100으로 본다면 3, 4차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40이하라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원인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 △연공서열 임금체계 △기업의 직접고용 회피(하도급 활용)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그동안의 임금체계, 고용형태로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올해부터 2~3년 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새로운 고용생태계의 경우 노사 양보를 전제로 한다”며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하도급과 3~4차 협력사까지 수익이 흘러가도록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사측은 직접고용을 늘리고 하도급, 간접고용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 고용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호봉제 위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3, 4차 하도급 업체로 성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leeeunho7@

최경환號 인사 핵심코드는 ‘조직안정’

예산실장 송언석·세제실장 문창용·기획조정실장 김철주 등
기재부 1급 보직 인사 조만간 단행… 타 부처 파견·교류 제외

유례없는 인사 적체로 홍역을 겪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주요 1급 보직 인사를 조만간 단행한다. 이번 인사는 승진과 영전성 보직이동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보직을 받지 못한 인공위성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조만간 1급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급 인사에 막혀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1급 이상 후보자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청와대에 인사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가 인사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보다 ‘조직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다른 부처 파견이나 교류, 개방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직위 중심으로 단행하겠다”며 “조직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대면보고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기재부 1급 인사의 하마평을 살펴보면 예산실장에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에 문창용 조세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에 김철주 경제정책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의 조달청장 부임으로 공석이 된 재정업무관리관 후보군으로는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곽범국 국고국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다른 1급직의 후보군을 보면 최원목 현 기획조정실장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사실상 내정됨에 따라 공석이 되는 기조실장 자리에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정은보 차관보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최상목 전 정책상황실장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보직을 받지 못하는 본부 대기자 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급 인사에 이어지는 국장급 후속 인사에서는 대기 중인 이른바 ‘인공위성’들이 대거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획된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본부 대기자 수는 0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위 공무원들의 지방자치단체행이 잇따르는 것도 기재부 인사의 폭을 키우고 있다. 김규옥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 우범기 통계청 기획조정관은 각각 울산시와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유력하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세월호법’ 타결이냐, 장기전이냐? 오늘 막판 협상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주목
입장차 커 합의 가능성 불투명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만나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7월임시회를 빈손으로 끝낼 경우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어 극적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임시회를 소집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새누리당은 여야 2명씩 추천하되 4명 모두 여야가 합의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중 여당 몫 1명을 야당 혹은 유가족이 추천할 수 있도록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도 수차례 접촉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이날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만날 것”이라면서 “세월호법 합의가 오늘 중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8월 임시회를 소집해) 25일께나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등을 놓고 질 수 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 임시국회 종료일을 앞둔 지난 18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실패했다. 따라서 19일까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듯하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야당이 이날 협상타결 불발 시 오는 25일을 다음 마지노선으로 꼽는 건 올해부터 처음 시행키로 여야 간 합의한 분리국감의 1차 국감이 2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날 세월호법 협상이 어그러지면 본회의도 자동 무산돼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단원고 3학년생 대입 특례법, 국정감사 분리법안 등의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된다. 그럼에도 세월호법의 해법을 당장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국감 시작예정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 짓고 밀린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당 중진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단과 비공개회의를 여는 등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이어갔다.

김미영 기자 bomnal@

소비·투자 해외로… ‘부가가치’ 커지는 한국

한은 ‘경제구조’ 보고서

한국 경제는 최종 수요로 소비나 투자가 늘어날 때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의 ‘2005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로 본 한국의 경제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국 경제의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57로, 일본(0.877), 미국(0.864), 중국(0.773)보다 낮다.

이 보고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주관으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이 공조해 산업의 상호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자 5년 단위로 작성하는 국제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것이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최종 수요 1단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뜻하며, 0.757의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 소비나 투자 등으로 1000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할 때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757원에 그쳤다는 얘기다.

나머지 부가가치는 일본(33원), 미국(24원), 중국(20원), 인도네시아(6원), 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각 3원), 태국·필리핀(각 1원) 등 분석 대상 역내 9개국에서 94원 가량이 유발됐다. 148원은 유럽, 인도 등 역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자국 내 부가가치율이 제일 높은 일본은 역내 9개국(46원)과 역외국(77원) 등 해외에 유발한 부가가치가 최종 수요 1000원당 123원에 불과했다.

주요 산업별로도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국이 일본에 훨씬 못 미쳤다.

김미영 기자 bomnal@

휴가철 영향… 7월 생산자물가 소폭 상승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작았다.

한국은행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가 105.75로 전년 동월보다 0.2%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 2012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5월 보합세(0.0%)를 거쳐 6월 0.1% 올라 2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7월 상승폭은 2012년 9월(0.2%)과 같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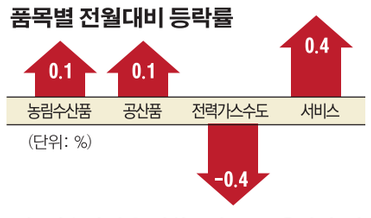
7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로도 0.1% 올랐다. 품목군별로는 서비스가 전월보다 0.4%나 상승했다. 휴양콘도(16.1%), 호텔(5.3%), 국제항공여객(7.8%), 소프트웨어개발공급(4.3%) 등의 오름폭이 특히 컸다.

임수영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휴가철 영향도 있지만 휴양콘도나 호텔은 전년 동월로도 각각 8.8%와 4.2% 올라 비교적 상승폭이 컸다”고 전했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등락률

	지수		등락률(%)	
	2014년 6월	2014년 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지수	105.6	105.75	0.1	0.2

품목별 전월대비 등락률



농림수산품은 전월보다 0.1% 올랐다. 시금치(74.2%), 배추(51.9%), 상추(30.4%), 고구마(7.1%), 물오징어(2.3%), 냉동고등어(2.3%) 등의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오리고기(-12.9%), 돼지고기(-12.1%)는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 각각 43.2%, 28.2% 비싼 편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박상은 조현룡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빗장풀린 ‘방탄국회’… 검찰 수사선상 올라 있는 의원들 어떻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9일 7월 임시회가 막을 내리면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회기 종료 후 여야 간 협상을 벌여도 일러야 22일부터 8월임시회가 시작되고, 협상 결렬 시엔 9월 1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미영 기자 bomnal@

국세청, 작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로 230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3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인 4138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로,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날 만큼 세수여건이 좋지 않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은 2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의 4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인 4138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21곳으로, 2012년의 15곳보다 6곳 늘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109억7000만원으로 2012년 39억7000만원보다 3배 늘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당·정·청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민세 세제개편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기여율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누적 적자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영 기자 sypark@

삼성전자·반올림 협상 풀릴듯 하더니…

반올림 "일부 피해자만 우선 보상… 진정성 부족하다" 반발
삼 성 "사실과 다른 주장 안타까워… 진지하게 협상할 것"


반올림이 18일 서초 삼성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풀려나던 실타래가 다시 엉킬 조짐이다. 7년 만에 삼성 반도체 피해자 보상이 가시적 진전을 이뤘으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협상 주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반기를 들었다.

반올림은 18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책임 있는 보상과 사과, 노조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피켓과 플래카드가 동원됐고, 요란한 구호가 등장하는 등 집회를 방불케 했다.

반올림 측은 이날 "지난 6차례의 협상에서 삼성의 진정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모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하며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6차 대화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반올림 측 피해자, 가족 8명 가운데 5명이 밝힌 보상 논의를 우선 진행, 필요하면 실무협의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삼성전자가 받아들이면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우선 보상 논의 후 기준과 원칙을 세워 다른 피해자에게 적용할 것이라는 단계까지 대화가 진척됐다. 6차 대화에서는 또 반올림 측이 그동안 밝히기 꺼렸던 산업재해 신청자 33명의 명단을 삼성전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도 반올림이 그간 제안했던 종합 진단을 수용하기로 했다.

백혈병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할 첫 단추를 끼우는 듯했지만, 반올림 측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었다. 양측의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6차 대화에서 보상을 수용한 5명의 피해자와 가족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올림 측이 선 보상안에 동의한 5명의 피해자와 가족을 교섭단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반올림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반올림 측은 "(내부분열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아직 다음 달 3일 열릴 7차 대화에 임할 교섭단 참여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화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올림이 집회를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인내심과 진정성을 갖고 최종 타결까지 투명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gutjy@

오늘 11개월 만에 노사정위 공공부문 회의체 신설 논의

임금·근로시간 개편 여부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가 약 11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에 따라 19일 정오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6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와 산업안전 관련 회의체 신설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했다.

노사정위 주요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여부도 다룬다.

이처럼 이번 본회의는 임금과 근로시간처럼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의 대신 다른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인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대표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익위원으로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한다.

유혜은 기자 euna@

"탈세의혹 여배우 송양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

박범계 의원 "한상률 前 청장 연루"

25억원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송모 양에 대해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러한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에 태광실업 표적 특별세무조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연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 후보자에 취임 후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면서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양에 대해 조사범위를 최대 5년분으로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를 언급,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김모 회계사는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락앤락, 납품업체 통장·장부까지 들춰보나

'수시 감사 서약서' 요구해 논란
회사측 "강요 없어…전면수정"

주방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이 영업기밀이 담긴 납품업체의 장부나 통장 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수시 감사 동의서약서'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면서 납품업체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는 협력사가 락앤락과의 거래시 '락앤락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 '불공정한 거래나 부정 행위를 제의받거나 인지했을 때 즉시 락앤락 대표에게 제보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락앤락은 거래의 투명성 강화 등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서약서 내용 중 불공정 거래에 대한 락앤락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사가 수시로 감사 요청에 동의한다는 문구다. 서약서 내용대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락앤락은 영업기밀이 담긴 협력업체의 장부나 통장까지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서는 락앤락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락앤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영업상 기밀 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락앤락이 자신들과 거래하려면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락앤락은 서약을 위반하면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 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를 받는 데 동의하도록 했다.

논란이 커지자 락앤락은 지난 18일 납품업체에 기존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락앤락 관계자는 "서약서는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직원 단속용이었지만 일부 문구의 경우 지나치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약서 동의 강요 주장에 대해 "협력사를 상대로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윤철규 기자 yoonck@

현대차 내부자료 빼돌린 르노삼성 前 임원 구속

현대자동차를 퇴사하며 회사 내부자료를 빼돌린 르노삼성자동차 전 임원이 검찰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53)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현대차 인도 영업법인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둔 마케팅 자료 등 내부 문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새로운 차종의 예상 가격, 해외 공장과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 정보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약 26년 현대차에 재직한 이씨는 퇴사 직후 르노삼성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다가 1년만인 지난해 2월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부산 물폭탄…잇단 붕괴사고

18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철골 구조물과 중장비가 내려앉아 파손됐다. 공사장 인근 인도와 도로 20m가량도 내려앉아 왕복 6차로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근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이 일부 파손됐다. 연합뉴스



휘발유값 6주째 하락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8일 유가정보서비스 사이트 오피넷을 통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42.94원으로 지난 8월 둘째주 전국 평균 가격인 1,845.42원보다 4.61원 내렸다고 발표했다.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79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철피아 의혹' 송광호 의원 검찰, 이번주중 소환 방침

AVT로부터 금품수뢰 혐의

검찰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송 의원은 이번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송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AVT 대표 이모(55)씨 등 철도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송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VT가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5)씨를 통해 송 의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변인은 AVT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해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캠코, 부실자산 관리 소홀로 서민에 피해

서민채권 6조 대부업체에 넘겨
성실 채무자도 빚 독촉 시달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업무 소홀로 파산한 저축은행의 자산 낭비를 방치하거나 서민의 빚을 대부업자에게 넘겨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게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예보와 캠코를 상대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사람 등 6만여 명의 저신용 연체자가 보유한 채권 6조4000억원을 대부업체 2곳에 단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가 캠코에 착실하게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의 집까지 경매에 넘기는 등 채무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또 집을 보유하고도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도 부서간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잠재 지원대상 5700여명 중 3.2%인 187명만 지원하는 실정이다.

예보는 기금을 지원한 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가진 재산을 조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모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자산이 38억원에 이르는 등 총 2000여명의 부실 기관 관계자가 2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 등이 가진 골프·콘도 회원권을 적극 매각하지 않아 총 45억원 상당의 회원권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파산업무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와 캠코는 그럼에도 외부기관에서 교육받는 직원들에 대해 부부 동반여행 등에 쓰이는 자치회비를 5년간 2억원 정도 지원하고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지난해에만 총 37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모두 3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건보공단 담배소송, 내달 법정공방 돌입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 2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로써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담배회사들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서울365mc병원 코디네이터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연봉외 목표·시술수당 별도

모집요강

모집직종	병원코디네이터
직무내용	접수 및 수납, 고객응대, 예약관리 등
접수마감일	2014년 8월 22일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초대졸 이상
우대사항	청년층

(주)삼육오엠씨네트웍스에서 서울365mc병원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고객 안내, 접수 및 수납, 예약관리 등이다.

이력서를 메일로 접수하면 본사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지원자의 경력이나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다.

급여는 연봉으로 지급되며, 회사 측은 연봉 외에 목표수당과 시술수당이 별도 지급된다고 명시했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연금, 중식, 석식, 유니폼, 교육비, 도서비 등이 제공된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수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일요일과 공휴일, 월 3회 평일 휴무가 주어진다.

근무 예정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7545-3660)로 문의 가능하다.

유혜은 기자 euna@

국민은행 신규채용 2배 이상 늘린다

지난해 200명서 올해 340명… 2016년 500명까지
10년 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장기인력 수급 계획

국민은행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향후 10년 내 본격적으로 이뤄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완화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200명이었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올해 28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상반기 60여명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까지 합치면 총 채용 규모는 340여명에 달한다. 내년에는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400명, 2016년에는 500명까지 늘린 후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어윤대 KB금융 전 회장이 도입한 해외 우수인재 채용을 폐지하는 대신, 신입사원의 30%를 지방대학 출신 등 지역 인재로 채워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밀착한 관계형 금융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의 절반 가까이를 해외대학 졸업자가 차지해 국내 대학 졸업자 채용이 100여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대졸 채용은 4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수년간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대규모 채용 확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장기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향후 20년간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금부터 채용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인력 단절 및 고급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채용 확대에 나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4~5년 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 매년 700~800여명의 퇴직자가 생긴다"며 "그때부터 채용 인력을 급격히 확대하면 인력 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 금융 등으로 점포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채용 확대가 바람직하느냐는 것도 분석했지만,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에 균형이 생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은행원의 재직기간을 30년으로 잡고 매년 500명씩 채용하면 결국 1만5000여명의 인력이 된다"며 "여기에 상당수 중도퇴직자를 고려하면 전체 인력은 1만2000~1만3000명 선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우 기자 acw@

카드사 급전대출 수익 증가

TM 규제·금리 인하했지만
저신용자 늘어 수수료 증가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여신협회가 카드대출 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카드대출 금리를 인하했지만 일부 카드사는 올해 2분기 카드대출 수수료 수익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저신용자들이 늘고, 급전대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입장이어서 약탈적 대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올해 2분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비율이 연 21.48%로 전 분기(21.24%)보다 0.24%포인트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비율이 연 21.35%로 전분기 연 21.26%보다 0.1%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비씨카드 역시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비율이 연 20.84%로 전분기(17.29%)보다 3.55%포인트 올랐다.

수수료 수입비율은 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수료 수입을 총 취급액으로 나눈 다음, 연 이자율로 환산한 값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만큼 카드사들이 실제로 받은 이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사들은 금리가 인하됐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많아져 수수료 수입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서비스는 급전 대출의 성격이 있어 금액이 작지만 연리로 환산하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대부분의 현금서비스 금리가 연 7~26%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 정도임을 감안하면 은행의 5배가 넘는 고금리다.

카드사들이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카드사는 본업과 대출 업무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하도록 본업 비율 규제를 받는데 신용판매 취급을 늘리면 그만큼 대출 총액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수수료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카드사 분기별 수수료 수입비율 (단위 : 연 %)

		1분기	2분기
KB국민카드	현금서비스	21.24	21.48
	카드론	16.43	14.26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21.26	21.35
	카드론	16.75	15.93
비씨카드	현금서비스	17.29	20.84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22.07	21.82
	카드론	15.89	15.68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21.85	21.91
	카드론	15.88	15.86
우리카드	현금서비스	21.35	20.96
	카드론	13.7	15.39
하나SK카드	현금서비스	22.26	21.88
	카드론	15.98	15.87
현대카드	현금서비스	21.21	20.05
	카드론	17.96	17.33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아주캐피탈, 상반기 순이익 193억

지난해보다 6.7배 늘어

아주캐피탈이 매각 진행중에도 상반기 193억원 순이익을 실현했다.

이는 반기만에 2013년 연간 당기순이익을 초과 달성한 수치로 양질의 채권 확보에 따른 영업비용 감소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주캐피탈은 상반기 28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지난해 같은기간(52억)보다 4.5배 증가했다. 이는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25억) 대비 6.7배 증가한 수치다. 영업수익은 3979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연체율이 지난해 상반기 4.59%에서 올해 3.94%로 개선되는 등 대손상각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경기변동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온 결과 양질의 신규채권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연체지표가 개선되고 대손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이덕훈 수은 행장(오른쪽)과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쉬바니(Mohammed Al Shaibani) ICD 대표가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공동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노조, 내달 3일 총파업 예고

26일 조합원 찬반투표

금융노조가 관치금융과 복지축소 등을 반대하며 14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26일 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부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내달 3일 총파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3일 산별 중앙교섭이 결렬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합법적 쟁의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 결의 이유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른 복지축소, 일방적 금융산업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 등을 꼽았다.

노조는 "표면상으로는 산별 중앙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지만 중앙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노사간 자율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대한 획일적인 복지축소 강요와 일방적인 금융산업 재편을 중단하고 관치금융 척결 및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노사간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5일 임시대의원 회의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26일 전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에는 여의도에서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수출입銀, 두바이 국부펀드와 업무협약

한국수출입은행이 두바이투자청(ICD)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투자에 나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8일 두바이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ICD)과 공동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은이 중동 국부펀드와 업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두바이정부의 투자포트폴리오 통합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ICD는 에미리트 항공, 두바이내셔널은행(ENBD), 두바이 이슬람 은행, 두바이거래소 등을 보유한 총 700억달러 규모의 두바이 국부펀드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수은이 한-두바이 간 경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 만큼 한국기업의 보다 활발한 해외진출이 기대된다. 두 기관은 향후 중동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헬스케어, 한류문화, 인프라, 에너지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협력 관계를 형성·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현재 수은과 ICD는 이러한 공동투자의 파일럿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 병원들의 두바이 병원사업 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내달부터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

최저한도 없어져 1포인트도 사용

내달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쌓은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되고 포인트가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 유효기간과 사용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그동안 운용해왔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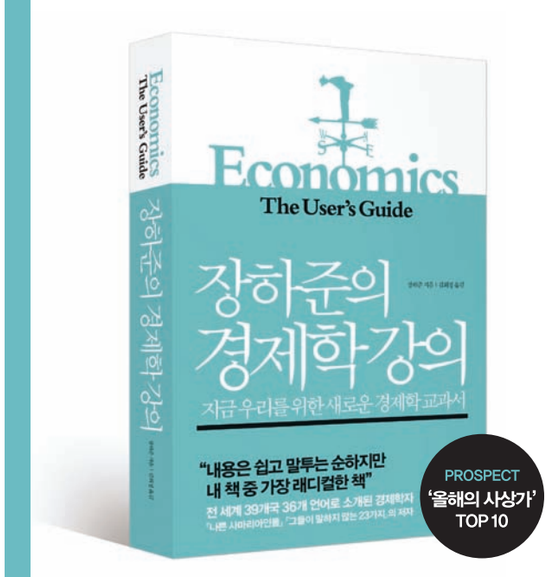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 한도도 없어져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6월부터 포인트 최저 사용기준을 기존 5000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췄다.

롯데카드는 롯데 계열사 포인트와의 유효기간 통합이 과제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인 반면, 롯데마트 등 유통계열사에서 쌓인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쓰이지 못한 채 자동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지난해에만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1100억원, 1300억원의 포인트가 유효 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했던 1포인트를 1원으로 통일하려던 계획은 카드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모아서 쓸 수 있는 방안 역시 이번 개선안에서 빠졌다.

박엘리 기자 el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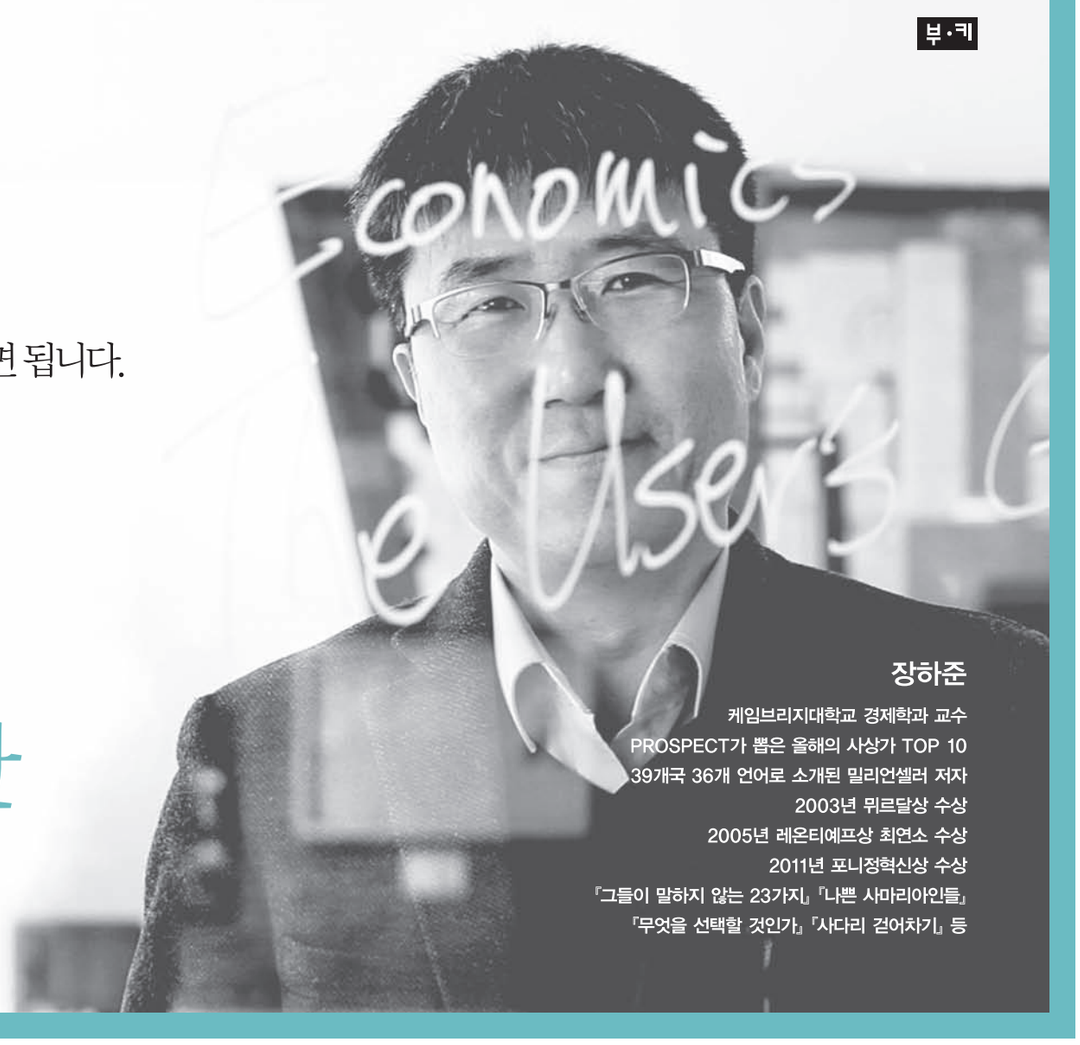


모를 땐 어렵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약간의 어려움, 그것만 넘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경제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 16,800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ROSPECT가 뽑은 올해의 사상가 TOP 10
39개국 36개 언어로 소개된 밀리언셀러 저자
2003년 뮈르달상 수상
2005년 레온티예프상 최연소 수상
2011년 포니정혁신상 수상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나쁜 사마리아인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사다리 걷어차기』 등

나를 위한 경제학을 시작할 시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SH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www.i-sh.co.kr

내곡지구 2·6단지 일반분양 8월 21일 청약 접수 시작!

강남과강남이 경쟁한다



※본 제작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의 최대 발전수혜지, 세곡2지구

전국 어디든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광역교통 네트워크
강남의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
도심 속 자연의 쾌적한 주거환경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 환경

강남구 세곡2지구 6·8단지



- 강남권 최초, KTX수서역환승센터 개발 (2015 완공)
-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동남권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등 인접
- 서울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내외곽으로 편리하게 이동
- 강남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단지 내 율현초교 개교 예정 (2014년 9월)
- 가든파이브, 이마트, NC백화점, 강남삼성병원 등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 단지 앞 대규모 근린공원(예정), 탄천공원, 헌인릉 등 녹지공간 풍부

강남 최고의 자연경관, 내곡지구

서울과 수도권을 넘나드는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남의 프리미엄 생활 인프라
산으로 둘러싸인 강남의 전원생활권
강남학군과 대치동 학원가 인접

서초구 내곡지구 2·6단지

- 청계산, 구룡산, 인릉산, 여의천, 양재시민의 숲으로 둘러싸인 수려한 자연경관
-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양재역 · 강남역 등 10분 거리
-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 국내 최대 규모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 인접
- 강남학군과 대치동 학원가 인접 (언남중, 언남고, 국악중, 국악고)
- 언남초 신축이전 공사 중 (14년 9월 완료)



신규분양 예정!

- 세곡2지구 6단지 10월 중 분양예정
- 세곡2지구 8단지 11월 중 분양예정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참조

내곡지구 2·6단지
- 1,2순위 8월 21일(목) 접수
- 3 순 위 8월 22일(금) 접수

분양 문의 **1600-3456**

수천억 추가비용…錢에 발목잡힌 롯데

제2롯데월드 추가 공사 비용
기존 계획보다 600억원 늘어
수원 롯데몰·부산 대형마트도
전통시장 지원금 수백억 예상

추가 비용에 떠는 롯데

	교통및 상생비용		내용
	기존비용	추가 또는 요구 비용	
제2롯데월드	4500억원	5100억원	서울시, 저층부 임시개장 위해 교통환경 개선 투자 증액 요구
수원 롯데몰	137억원	300~500억원	발전기금 규모 놓고 시장 상인들 반발
롯데마트 광복점	각 시장 당 수천만원	?	시장 17곳중 2곳 상생기금 등 놓고 갈등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 쇼핑몰, 대형할인점 등 임박한 사업장 개장에 필요한 수천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금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대부분 건축물의 안전 보완대책이나 주변 상인과의 갈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면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승인 관련 비용이다. 롯데그룹은 최근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한 교통·안전 보완대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롯데는 올림픽 대로 하부도로 잠실주공5단지에서 장미아파트 뒷길까지 1.12㎞ 미연결구간 공사와 관련, 서울시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 구간 지하화는 추후 논의를 제안하며 공사비를 68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된 480억원보다 2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서울시는 1.12km 전 구간의 지하화를 고수하며 1100억원의 사업비를 롯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뜻을 받아들여 롯데가 1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기존 계획보다 600억원 가량이 추가 투입된다. 이 경우 롯데는 잠실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만 기존 투자 비용 47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5100억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사업비로 3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통상 주변 인프라 구축 비용이 건설 사업비의 5% 내외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롯데는 이보다 3배가량 높은 15%의 비용을 투자하는 셈이다.

개점을 코앞에 둔 수원 롯데몰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수원시상인연합회는 롯데 측이 납득할 만한 보상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업계와 전통시장 등에 따르면 롯데는 현금 50억원과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 비용 87억여원 등 총 137억여원의 상생 지원금을 상인회에 제안했다. 반면, 상인회는 현금 지원 비용만 300억~50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확장 개점해 본격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롯데마트 부산 광복점도 전통시장 2곳과 상생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해부터 주변 전통시장 17곳과 상생협약을 맺고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었지만, 인근 건어물시장과 부평깡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보상금액과 상생방안에 대해 양측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 때문에 사업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주변 상인들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요구 액수가 과도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기아자동차 '올 뉴 쏘렌토'.


BMW '뉴 X4'.

신형 SUV는 지금 '여름전쟁'

기아차, 3세대 '올 뉴 쏘렌토' 공개
BMW '뉴 X4' 등 수입차도 가세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여름철 인기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잇따라 선보이며 SUV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19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5년 만에 쏘렌토 후속 모델 '올 뉴 쏘렌토'를 선보였다.

신형 쏘렌토는 2002년 2월 1세대 '쏘렌토'로 처음 출시된 뒤 올해 6월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총 207만여대가 판매된 기아차의 대표 SUV다. 이번에 공개된 '올 뉴 쏘렌토'는 2009년 4월 출시된 2세대 '쏘렌토R' 이후 선보이는 완전 변경 3세대 모델이다.

신형 쏘렌토는 초고장력 강판(AHSS) 비율을 53%로 높이고, 차체 구조간 결합력 강화를 위한 구조용 접착제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또 국내 SUV 최초로 액티브 후드를 장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 기능은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할 때 차량 후드를 들어올려 후드와 엔진룸 사이에 충격흡수공간을 확보, 보행자의 머리 상해 위험을 줄인다.

수입차도 SUV 열풍에 가세했다. BMW 코리아는 지난 18일 '뉴 X4'를 출시했다. 뉴 X4는 쿠페형 디자인에 SUV의 공간이 더해진 중형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다. 또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오는 20일 '올 뉴 지프 체로키'를 출시한다. 이 모델은 1974년 첫 선을 보인 중형 SUV인 '지프 체로키'가 7년 만에 풀체인지 된 모델이다.

여름철은 자동차 업계의 전통적인 SUV 성수기로 꼽힌다. 캠핑과 휴가 등 아웃도어 활동이 여름에 집중되면서 휴가용품을 싣기에 SUV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의 이동이 많은 추석시즌을 앞두고 있는 것도 SUV 인기의 한 요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SUV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산차는 22%, 수입차는 31%가 증가했다"며 "캠핑족 열풍을 바탕으로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SUV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쇼핑, 세일즈앤리스백 통해 6000억 조달

〈매각 후 재임대〉

백화점 2곳·마트 5곳 등 점포 7곳 매각
KB자산운용과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롯데쇼핑이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통해 6000억원을 조달한다.

롯데쇼핑은 KB자산운용과 백화점 2곳, 마트 5곳 등 점포 7곳을 매각하는 6017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산매각에는 롯데백화점 일산점·상인점, 롯데마트 부평점·당진점·평택점·고양점·구미점이 포함됐다. 점포를 매각한 후 재임차해 점포를 운영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이다.

그동안 롯데쇼핑은 재무구조 개선 및 자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점포의 자산유동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롯데쇼핑은 이번 자산유동화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장금리를 반영해 임대료가 변동되는 구조로 계약을 맺었다. 기존 유동화 방식은 매년 고정비율로 임대료가 인상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 방식은 국내 최초로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해 7년마다 임대료를 새로 적용하게 된다.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롯데쇼핑은 매각 후 7년까지는 연간 4.95% 고정 임차료를 지급한다. 20년간 부담하게 되는 임차료는 5%대 초중반으로 추산된다.

롯데쇼핑은 이번 자산유동화에 대해 저성장 기조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재무부문장 장호주 상무는 "이번 세일즈앤리스백 방식 자산유동화는 20년 장기 임대차계약으로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동시에, 금리와 연동된 임대료 구조를 통해 롯데쇼핑과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거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람 기자 zing@

삼성 계열사 평균급여 1위 '정밀화학'

월 767만원… 물산·전자 뒤이어

삼성 계열사 임직원 상반기 평균 보수 총액 및 월급 단위: 만원

계열사	보수 총액	평균 월급
삼성정밀화학	4600	767
삼성물산	4400	733
삼성전자	4300	717
삼성토탈	4200	700
삼성생명	4000	667
삼성테크윈 삼성SDS	3800	633
삼성증권	3672	612
삼성SDI	3600	600

출처: 금융감독원

삼성그룹 계열사 중 임직원 월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정밀화학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삼성 계열사 20곳의 올해 상반기 임직원 보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정밀화학 임직원의 평균 보수 총액이 4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767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반기 보수 총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기 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표기되는 총 급여다.

삼성물산이 4400만원(월 733만원)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상반기 평균 보수 총액이 많았고, 이어 삼성전자(4300만원·월 717만원), 삼성토탈(4200만원·월 700만원), 삼성생명(4000만원·월 667만원), 삼성테크윈·삼성SDS(3800만원·월 633만원), 삼성증권(3672만원·월 612만원), 삼성SDI(3600만원·월 6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 보수는 삼성전자가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4명의 등기이사에 지급한 보수 총액은 215억4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3억8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사장의 보수 총액이 113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오현 DS(부품) 부문 총괄 부회장이 53억7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윤부근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 사장은 각각 28억8600만원, 19억3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I(13억3800만원)와 삼성물산(10억2000만원)의 등기이사 평균 보수도 10억원을 넘었다. 박상진 삼성SDI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은 올 상반기 각각 19억6900만원, 15억8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편 상반기 임직원 월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던 삼성정밀화학의 등기임원 평균 보수는 2억640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김지영 기자 gutjy@

LS전선-노르웨이 아커솔루션 해양용 케이블 장기 공급 계약

LS전선은 노르웨이 아커솔루션과 해양용 케이블에 대한 우선 공급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전선 업체가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와 우선 공급자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S전선은 이번 계약으로 향후 7년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1841년 설립된 아커솔루션은 30여개 국가에서 석유, 가스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계약 내용에는 해양 플랜트 구조물과 탐사, 시추 장비 등에 사용되는 전원공급 케이블과 제어 케이블 등 500여 종의 케이블 표준단가가 포함됐다.

김종원 LS전선 통신·산업전선 해외영업부문장(이사)은 "경쟁사 대비 납기를 줄이기 위해 제안한 노르웨이 현지에 제품 창고를 운영하는 방안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이번 공급자 선정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장효진 기자 js62@



LG전자, 보급형 스마트폰·태블릿에 'G3' 프리미엄 UX 적용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LG G3'의 대표 UX(사용자경험)를 향후 출시하는 보급형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제스처 샷'을 포함한 카메라 UX와 '스마트 키보드' 등을 보급형 제품에도 기본 탑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킬 스위치'와 '스마트 알림이'도 적용한다. LG전자는 올해 초 선보인 독자 보안 솔루션 '노크코드'를 기존 출시 제품에 업그레이드하고 올해 선보인 보급형 모델에도 탑재한 바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차세대 TV, 미국서 '폭풍세일'… 국내 소비자만 봉?

삼성 55인치 커브드 UHD TV
출고가보다 200만원 저렴해져
LG도 55인치 OLED 가격 인하

UHD, OLED 패널을 탑재한 차세대 TV의 국내와 해외 판매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V의 경우 그간 국내외 가격 격차로 해외 직구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세대 TV까지 최근 해외에서 가격 인하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법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5인치 커브드 UHD TV(모델명 UN55HU8700FXZA)를 2799달러(약 284만원, 세금 별도)에 판매하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책정했던 권장소비자 가격(4499.99달러, 약 457만원)보다 200만원가량(1700달러) 낮아진 액수다. 65인치 역시 기존 출고가(5499.99달러, 약 559만원)와 비교해 가격이 크게 하락면서 약 386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에서 200만원대 진입한 커브드 UHD TV(HU8700)와 동급 모델의 출고가가 55인치 420만원, 65인치 640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다.

LG전자도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서 55인치 커브드(곡면) OLED TV(55EC9300)를 3499달러(약 360만원)에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55인치 커브드 TV를 출시했을 당시 책정했던 현지 판매가 1만5000달러(약 1540만원)보다 80% 수준 저렴해진 가격이다. 국내 판매가격 역시 최초 출시가 1500만원에서 지난 5월 599만원으로 가격을 낮췄지만 아직 미국 현지 판매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해외 현지 판매가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데는 UHD·OLED TV의 대중화와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이 접목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UHD TV와 OLED TV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TV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미국, 유럽 시장을 겨냥해 제품 모델, 가격대를 다양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제품 가격 차이로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족'이 늘어나자 '월드워런티'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맞추다보니 프리미엄 제품은 물론 일반형, 보급형 모델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호텔신라, 마카오 공항면세점 우선협상자 선정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마카오 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호텔신라는 홍콩 스카이커넥션사와 함께 합작사 형태로 마카오 공항면세점 운영사업에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호텔신라는 올해 11월부터 5년간 마카오 공항면세점에서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마카오 공항 측과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킹파워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마카오 공항면세점 면적은 약 1000㎡ 규모로, 전체 연간매출은 1억6000만 달러 수준이다. 호텔신라는 뉘앙스그룹, LS트레블리테일 등과 경쟁해 우선협상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은 마카오 공항면세점에 입점하면 향수·화장품·패션잡화·시계·주류·담배 등 전 품목을 취급할 예정이다. 특히 화장품·주류·담배 분야를 특화할 계획이다. 앞서 호텔신라는 2011년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쇼핑단지에 198㎡ 규모의 화장품 전문매장 '스위트메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호텔신라가 마카오 공항면세점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호텔신라는 외국 공항 두 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호텔신라는 10월 1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6600㎡ 규모 화장품·향수 매장을 열 예정이다. 호텔신라 측은 창이공항 매장이 문을 열면 6년 동안 추가매출 4조원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다람 기자 zing@

소비 침체·정부 규제에 날씨마저…

대형마트 '여름특수 실종사건'

마른장마·태풍에 서늘한 여름
물놀이용품·제습기 등 매출 고전
7·8월 모두 '마이너스 실적' 기록

서늘한 여름과 연이은 태풍 탓에 바캉스 대목이 실종되면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상반기 세월호 참사와 소비심리 악화, 정부 규제 등으로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형마트는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반기에도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휴가 성수기인 7월과 8월(1~16일)에도 마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관련상품 매출이 급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마트의 경우 물놀이 용품의 매출 신장률이 7월과 8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41.1%라는 역성장을 기록하며 바캉스 철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여기에 여름 의류와 스포츠 용품도 8월에 각각 -10.5%, -6.5%를 나타내며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역시 처지는 비슷하다. 8월 물놀이 용품 매출은 각각 -23%, -20.3%를 기록해 여름 장사를 완전히 망쳤다. 보통 여름 상품은 7월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8월 중순부터 차츰 수요가 감소하는데, 올해는 일찍 더위가 시작된 5월에만 특수를 누렸을 뿐 7~8월 매출이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변덕스런 날씨 탓에 바캉스 대목을 놓친 대형마트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실적을 면치 못했다. 업계 1위 이마트의 7, 8월 전체 매출 신장률은 각각 -2.2%, -3.1%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도 각각 -2%, -3.7%로 부진했고, 롯데마트 역시 -3.7%, -4.5%로 부진했다.

이같은 대형마트 3사의 여름 성적표는 여전히 소비심리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6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 세일을 석 달째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도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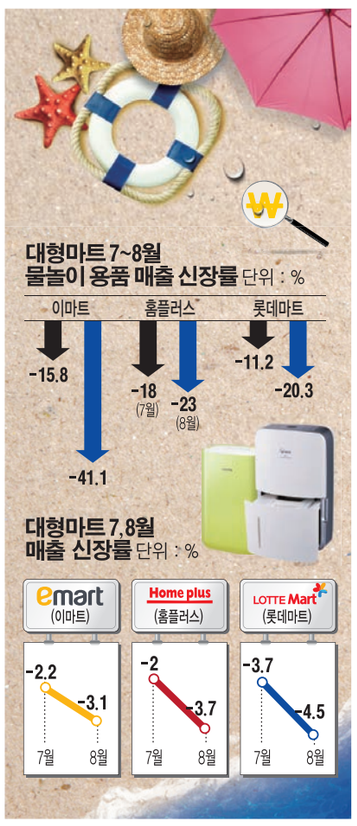
부산시에 따르면 최대 성수기인 8월 첫째, 둘째 주말(3일, 10일)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1만5700명으로, 지난해(395만5000명)와 비교해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대형마트들은 바캉스 기간에 사활을 걸며 3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비 없는 장마'와 연휴 때마다 닥친 태풍이 발목이 잡힌 셈이다.

한 대형마트 여름상품 담당 바이어는 "물놀이 용품의 경우 가족 단위 외에도 학교, 유치원, 교회 등의 단체 수요가 많았는데 올해는 세월호 사건 이후 단체 행사가 많이 줄어든 것이 타격이 컸다"며 "특히 8월에는 장마와 함께 주말에 태풍 소식이 몇 차례 있다 보니 신장률이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죽을 쑨 건 여름 대표 가전으로 자리잡은 제습기 생산업체도 마찬가지다. 제습기는 5월에만 반짝 특수를 누렸을 뿐, 장마철 특수가 집중되는 6~7월에는 마른 장마로 인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40% 가량 하락했다. 업계는 약 200만대의 제습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판매량은 지난해 판매량인 120만대에 머물렀다며 재고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예상치 않은 날씨 탓에 제습기 사업이 올해 된서리를 맞았다"며 "8월 말까지 증정이나 할인 행사를 통해 재고 소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제7 홈쇼핑, 너도나도 '군침'

업계·시민단체 "실효성 의문"에도
우정본부·중기청·aT 등 진출 채비

제7홈쇼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전용 채널인 제7홈쇼핑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제품 판로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논쟁 와중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홈쇼핑에 진출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활발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7홈쇼핑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최소 51% 이상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나머지 49%를 노리는 후보들로는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장터, 일부 종편채널 등이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 소속인 데다 '우체국쇼핑'을 운영하는 만큼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생산지 직송 온라인쇼핑몰 형태인 우체국쇼핑은 전국 3600여개 우체국, 온라인·모바일몰, 전화(우편고객만족센터)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장터는 지역자치단체, 언론사, 소비자협동조합 연합체로서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장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합계회원 54만명 이상의 11개 소비자커뮤니티와 제휴를 맺었고, 올해 안에 합계회원을 100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홈쇼핑 현황

개국연도	홈쇼핑명(현재 기준)	판매방송 의무 편성
1995	CJ오쇼핑	–
	GS홈쇼핑	–
2001	NS홈쇼핑	농수산제품 60%
	롯데홈쇼핑	중기제품 65%
	현대홈쇼핑	–
2012	홈앤쇼핑	중기제품 80%
2015	제7홈쇼핑	미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7홈쇼핑 후보군에 꼽히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영 홈쇼핑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을 설립하던 2011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간방식 운용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32.93%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나섰다.

한편 제7홈쇼핑 설립에 대한 잡음은 여전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미래부는 제7홈쇼핑 신설을 포기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제7홈쇼핑은) 오히려 중소기업들 사이에 경쟁만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거래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성격을 띠게 될 제7홈쇼핑은 경영평가나 국감 등 정치권 입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다람 기자 zing@



홈플러스, 신학기용품 1800종 최대 50% 할인

홈플러스는 가을학기를 맞아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학기 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문구·서적·가방·의류·잡화 등 1800여종을 역대 최대 수준 물량으로 준비했다. 더블A와 공동 기획한 복사지는 전국 최저가 수준인 1묶음(500매)당 2700원, 1박스(2500매)당 1만3000원이다. 홈플러스는 6개월 전부터 아시아지역 테스코그룹과 함께 대규모 물량을 공동 소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한입의 사치… '마카롱' 거센 열풍

값 비싸도… 빙수·아이스크림 등 인기
커피·베이커리 이어 유통업체도 가세



프랑스 디저트 마카롱 열풍이 거세다. 비싼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외면받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커피·제빵 전문점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유통업체들도 마카롱 전문 매장을 오픈하면서 손님몰이에 나섰다.

19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마카롱이 처음 출시된 2011년 당시 월 평균 매출은 5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달 월 매출 15억원을 돌파했다. 4년 만에 급성장을 이뤄낸 셈이다. 마카롱이 인기를 끌자 파리바게뜨는 최근 마카롱을 사용한 빙수, 아이스크림 등 신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판매처가 적어 상대적으로 마카롱을 접하기 힘들었던 지방까지 판매처를 확대해 대중화시킨 것이 적중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라온 마카롱 아이스크림 후기를 하루 6만명이 보고 일부 매장에서는 3일 만에 매진 사태를 보이는 등 소비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페 아티제도 올 들어 마카롱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4% 성장했다. 아티제는 프랑스 장인이 만든 마카롱 '비주 드 파리(Bijoux de Paris)'를 할인 판매하면서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티제 관계자는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위한 패키지 선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마카롱 열풍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K플라자는 수원점에서 이달 21일까지 '펭귄 마카롱' 팝업스토어를 연다. 대학로에 본점을 둔 펭귄 마카롱은 매일 새로 구워낸 수제 마카롱 사이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넣은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 마카롱 아이스크림은 매일 판매 2시간 만에 매진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9일 무역센터점 지하 1층에 프랑스 최고급 마카롱 '피에르 에르메 파리(PIERRE HERME PARIS)'의 국내 첫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제과업계의 피카소'라 불리는 피에르 에르메는 세계 최정상급 파티셰로,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연내 압구정점과 종로구 소격동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이선애 기자 lsa@



PC 이어 모바일도 외국 게임이 장악?

슈퍼셀 '클래시 오브 클랜' 구글플레이 매출 1위 눈앞
PC부문선 'LOL' 점유율 40% 유지…100주 이상 1위
COC 열풍에 "외국게임 시장 주도 우려" 목소리도

PC온라인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 시장도 외산 게임으로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COC)'이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 8월 출시된 이 게임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10~20위권 사이를 유지했지만, 마케팅을 실시한 이후 순위가 급격히 뛰어올라 이날 현재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승세로 미루어 머지 않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핀란드 기업인 슈퍼셀은 자사의 메인 타이틀인 '클래시 오브 클랜'의 흥행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100억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셀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 게임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PC온라인 부문에서는 이미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LOL)'가 이용시간 점유율 40%를 유지하면서 전체 순위 1위를 100주 이상 지키고 있다. 게임트릭스 집계에 따르면 PC온라인게임에서 점유율 상위 60개중 외산 게임 12개의 점유율이 60%가 넘는다.

PC온라인게임 시장의 주도권을 외산에 넘겨준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모바일 분야만큼 지키려 하고 있지만, '클래시 오브 클랜'의 영향력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선 '클래시 오브 클랜' 열풍이 일면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도 아예 외산 게임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은 여러 이용자가 하나의 그룹 '클랜'에 가입해 상대 클랜과 전쟁을 벌이는 구성으로, 직장 동료나 동호회, 동아리에서 클랜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커뮤니티에도 클랜원을 구한다는 글이 수십개씩 올라와 있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국장은 "게임 자체가 글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된다는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국내 게임들은 자본 투자가 취약해 거대한 자본을 갖춘 외국 업체들의 진격이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외산 게임의 모바일 장악 초읽기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경우 막대한 마케팅 비용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라며 "모든 외산 게임이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업체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산 게임에 맞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코드커팅' 현실화… 'OTT' 인기

벅스뮤직, 크롬캐스트 지원
TV 통해 340만곡 음원 감상
아프리카TV, BJ 시청 앱 내놔

유료 케이블을 끊는 '코드커팅'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 크롬캐스트를 필두로한 OTT(Over The Top) 기기의 등장에 유료 케이블 대신 OTT기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글로벌 시장에 크롬캐스트를 출시했고, 이듬해 5월 국내까지 제품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크롬캐스트 전용앱을 선보이며 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인 호핀과 티빙 등을 시작으로 최근엔 음악서비스까지 OTT 앱을 출시했다.

음악포털 벅스뮤직은 최근 벅스 앱 4.0을 출시하며 크롬캐스트를 지원하고 나섰다. 벅스 앱을 실행하면 크롬캐스트가 연결된 TV를 통해 340만곡의 음원을 모두 감상할 수 있고, 실시간 가사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동영상 포털 아프리카TV도 크롬캐스트를 통해 실시간 평균 5000여건, 일 평균 누적 10만건에 달하는 BJ(콘텐츠 제작자)들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앱을 내놨다. 특히 아프리카TV의 특장점인 BJ와 시청자 간의 채팅을 통한 실시간 소통도 TV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글 크롬캐스트에는 현재까지 250여개의 앱이 업로드됐다. 일부 기업들도 크롬캐스트용 앱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점차 지원 가능 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크롬캐스트를 벗어나 케이블 사업자가 직접 OTT기기를 내놓은 경우도 있다.

최근 CJ헬로비전은 티빙을 TV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티빙스틱을 출시했다. 전용 앱을 실행하면 영화와 방송 VOD 5만편, 케이블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 150여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티빙스틱은 티빙앱만을 연결할 수 있어 크롬캐스트보다 활용성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태헌 기자 119@

OTT(Over The Top)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큰 TV화면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단말기다. 와이파이 연결과 간편한 설정으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출력하는 기기에 맞게 해상도를 재구현할 수 있다.

라인 '프렌즈'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 잠실점 오픈

네이버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등장하는 캐릭터 '프렌즈'의 팝업스토어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정문에 마련된 이번 '라인 프렌즈 팝업스토어'에서는 라인 캐릭터를 활용한 머그컵,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핀란드 브랜드 '뮬라'와의 콜라보 제품은 물론, 온라인 스토어에서 1차 판매를 개시한지 4분만에 2000개가 모두 팔렸던 '리버스보틀'과의 콜라보 제품인 '브라운·샐리 보틀'도 만나볼 수 있다.

또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상징하는 트레비 분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포토존 앞에서 인기그룹 B1A4가 불러 화제가 된 '라인타운' 주제곡에 맞춰 율동을 하면 티셔츠, 이어캡 등의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뒤로 던져 성공한 사람에게도 8G 라인 USB와 코니 인형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라인은 작년 10월 롯데백화점 본점에 첫 팝업스토어를 오픈한 이래, 태국·인도네시아·대만·홍콩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유현 기자 yhssoo@



SKT 인천아시안게임 인프라 구축

SK텔레콤이 17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모바일 기반 IT대회 구현을 위해 본격 나선다. SK텔레콤은 역대 어느 아시안게임보다 수준 높은 모바일 기반 IT·통신·방송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최종 점검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경기 후원 활동에도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 SK텔레콤

SK케미칼, 백신공장 적격 승인… 녹십자 맞수로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SK케미칼이 백신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안동 백신공장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격승인을 얻어내며 녹십자의 최대 맞수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백신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녹십자가 유일했다.

SK케미칼은 "식약처 GMP 적격 승인을 받아 국제조달시장 입찰자격을 갖추게 됐다"며 "3가백신을 시작으로 폐렴백신 등 현재 개발 중인 각종 프리미엄 백신까지 본격 생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안동 백신공장은 세포배양액으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설비를 갖췄다. 백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녹십자나 일양약품 등은 유정란(계란)을 이용해 백신을 생산한다.

세포배양액을 통한 백신 생산은 유정란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갑작스럽게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즉각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정란을 구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조류독감이나 알레르기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특장점이다.

안동 백신공장은 이 뿐만 아니라, 발효방식인 폐렴백신과 유전자 재조합 방식인 자궁경부암 백신 생산도 모두 가능해 사실상 모든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SK케미칼은 폐렴백신에 대한 임상3상을 진행 중이고, 자궁경부암·장티푸스 백신 개발에도 착수했다.

SK케미칼 측은 백신 국산화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움에 따라 녹십자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성제 기자 psj@

알뜰폰 "연내 400만 가입 넘는다"

CJ헬로비전, 2년 가입자에 반값
SK텔링크, 중고생용 '열공·고3폰'
혜택 늘리며 새 고객층 확보 나서

알뜰폰이 연내 가입자 400만 돌파를 목표로 고객층을 전 세대로 확대하고 있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들은 고객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 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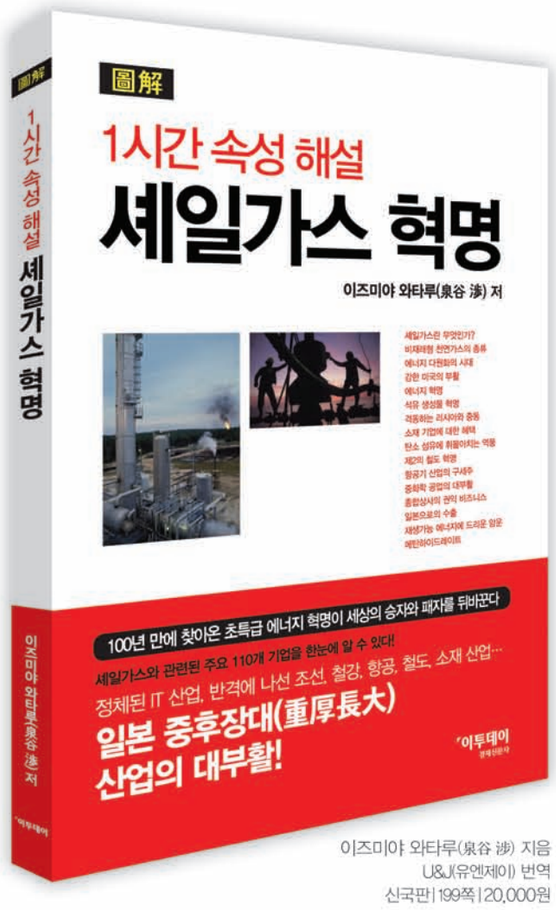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 348만명이다. 지난해 말 248만명에서의 증가속도를 보면 올 연말까지 400만명 돌파는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업계 1위 CJ헬로비전은 일단 기존 가입자의 충성심을 강화해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자 이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다. CJ헬로비전은 우선 가입 2년이 지난 가입자의 기본료를 50% 할인해 주는'평생반값플랜'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5개월 차 기본 요금부터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예컨대 현재 기본요금이 6만2000원인 LTE62 요금제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가입 2년이 넘는 시점부터 3만1000원만 내면 된다.

기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평생 반값플랜 수혜 대상 고객 중 기존 휴대폰을 쓰지 않고, 다른 단말기로 바꿔도 요금 할인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SK텔링크와 에넥스텔레콤은 청소년 가입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SK텔링크는 이달 초부터 국내 최대 온라인 교육기업인 메가스터디와 제휴해 중학생용 '열공폰', 고등학생용 '고3폰'을 선보였다. 열공폰은 미니멀폴더 단말기가 제공되며, 기본제공량은 음성 50분, 문자 150건으로 문자 사용이 많은 학생들에게 최적화됐다. 2년 약정시 월 기본료도 1만7270원으로 저렴하다.

김범근 기자 nova@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비상장 건설 빅5 실적, 롯데·SK 웃었다

롯데 2분기 영업익 513억·SK 흑자전환…현대ENG 양호
포스코 지난해보다 68.5% 급감… 한화는 4224억 적자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도 명암이 갈렸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 사업장 부실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평 순위 10위권 내 대형 비상장 건설사 5곳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SK건설과 롯데건설은 불경기 속에서도 선방한 반면 포스코건설과 한화건설은 실적이 크게 뒷걸음질쳤다.

우선 올해 시평 순위 3위로 뛰어오른 포스코건설은 2분기 영업이익이 542억3712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725억2755만원)에 비해 68.56% 급감했다. 전 분기(1534억6426만원) 대비로도 64.66%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306억9265만원으로 전년 동기, 전 분기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당기순이익은 51억9125만원으로 전년 동기 507억1355만원에 비해 급감했다.

해외사업 손실에다 최근 실시한 분양이 부진했던 것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화건설은 비교 대상 건설사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건설은 2분기 42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1조721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6692억3302만원, 당기순손실도 3731억36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해외플랜트 부문 손실을 선반영했고 주택부문에서도 분양 촉진을 위해 실시한 무이자대출, 서비스 등을 선반영하다 보니 실적이 부진했다"면서도 "하지만 오는 9월 이라크에서 3차 중도금이 예정돼 있고 부진한 부분을 미리 반영한 만큼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어려운 영업조건에서도 선방했다. 롯데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은 513억183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91.91% 급증했다.

특히 SK건설은 2분기 438억4242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 전 분기에 비하면 308.75%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월 현대엠코와 합병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아직 합병 후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은 힘들지만 단순 합병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2분기 1227억3081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와 전 분기의 500억~600억원 수준에서 크게 신장한 실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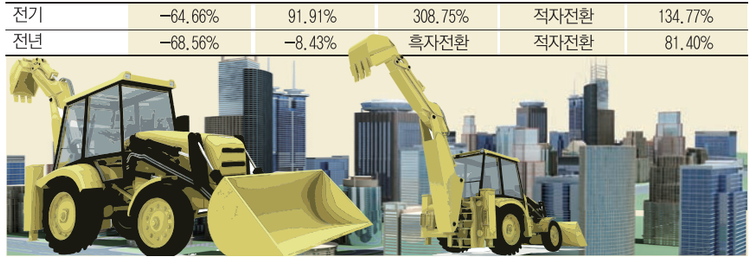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경기 활황기에 짜놨던 계획들과 해외 저가 수주 물량이 대부분 손실 처리됐다"면서 "최근의 부진을 바탕으로 해외사업도 노하우가 생겨나고 있고 정부도 부동산시장 부양에 힘쓰고 있는 만큼 건설사 실적은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비상장 건설사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 (단위: 만원) ※출처: 각사 분기보고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2014년 2분기	5423712	5131835	4384242	42,246,058(영업손실)	12273081
2014년 1분기	15346426	2674040	1072603	3012775	5227752
2013년 2분기	17252755	5604116	1,802,977(영업손실)	2599850	6765640
영업이익 증감률					
전기	-64.66%	91.91%	308.75%	적자전환	134.77%
전년	-68.56%	-8.43%	흑자전환	적자전환	81.40%



2기 신도시 '인기폭발' 판교 프리미엄 5억대

'휴먼시아' 155㎡ 5억1400만원
광교 '…자이2단지' 3억대 훌쩍
위례·동탄2 분양권 9000만원↑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분양권, 입주 아파트 모두 상종가를 치고 있어 프리미엄이 최대 5억원 넘게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입주가 막바지인 판교신도시는 봇들마을8단지 휴먼시아 155㎡의 경우 입주프리미엄(이하 평균프리미엄) 5억1400만원이 붙어 최고를 기록했다.

백현마을1단지 푸르지오그랑빌 145㎡는 프리미엄이 4억8300만원이 붙어 2위를 차지했다. 또 3위는 4억4700만원이 붙은 봇들마을9단지 금호어울림 144㎡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는 입주한 지 3~5년 된 동판교 물량이다.

판교에 얼마 남지 않은 분양권에선 주상복합 알파리움(2015년 11월)이 최고 인기다.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 지난 6월부터 전매가 허용됐다. 알파리움 1단지 180㎡와 2단지 180㎡가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무려 2억5000만원이나 붙었다.

수원 광교신도시도 입주 프리미엄이 붙었다. 자연&자이 2단지 214㎡가 프리미엄 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자연&자이 1단지 212㎡가 2억1400만원, 광교1차e편한세상 245㎡는 2억1300만원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모두 2012년 12월 입주했다.

또 분양이 한창인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분양권 프리미엄도 강세다. 2015년 11월 입주 예정인 래미안위례신도시 130㎡·131㎡·133㎡는 프리미엄이 평균 9000만원 붙었다.

동탄2신도시에선 꿈에그린프레스티지 119㎡가 6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A 113㎡와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B 113㎡의 프리미엄도 5500만원을 기록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국내 건설수주 회복세…상반기 49조6천억

작년보다 27% 증가… 공공부문 주도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공공부문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49조6551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6.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758억원(44.4%) 증가했고, 민간부문 수주액은 3조8280억원(15.9%) 늘었다.

공공 토목공사의 경우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김포도시철도,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등 기반시설 공사와 농림수산·하천·조경 등에서 물량이 증가하며 총 14조4946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주 물량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공공 건축공사도 위례신도시 아파트, 한국동서발전 사옥 등의 수주로 작년 동기 대비 34.6% 늘어난 7조20억원을 따냈다.

반면 민간 토목분야는 항만과 발전 송·배전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저조해 21.2% 줄었고, 민간 건축은 주거용 물량과 사무용 건물 수주 호조로 24.3% 증가했다.

한편 올해 6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조2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6월 공공부문 수주는 3조64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민간부문 수주액은 6조5975억원으로 21.0%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30% 가까이 상승하고 월별 수주액도 민간 주거용을 중심으로 증가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2012년 상반기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수주 증가도 미진하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

GS건설, 쿠웨이트서 6000억 규모 교량 공사

GS건설이 쿠웨이트에서 대형 교량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은 쿠웨이트 공공사업성이 발주한 1억6571만KD(쿠웨에트 디나르, 약 5992억원) 규모의 교량 공사, 도하링크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도하링크 교량은 쿠웨이트 내 물류 및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로, 쿠웨이트시 내 슈와이크 항에서 엔터테인먼트시티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43km 규모의 교량이다. 이 중 7.72km는 해상부 교량이고, 4.71km는 육상부 교량이다. 비상차로를 포함해 왕복 8차로로 지어지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이번 쿠웨이트 도하링크 교량은 카타르 도하메트로 공사에 이은 중동지역에서 GS건설의 두 번째 토목 프로젝트이자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다. GS건설은 중동지역 대형 인프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하링크 교량 조감도.

GS건설은 해외에서 주력사업인 플랜트 EPC사업 외에 토건 및 전력사업으로도 다수 진출하며 공종 다변화 전략을 펼쳐 왔다. 그중 해외 토목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지하철공사 5건, 베트남에서 철도, 도로 및 교량공사 6건 등을 수행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시장을 넓혀 왔으며 이를 발판 삼아 지난해 카타르 도하메트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지역 인프라 사업 진출에도 성공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사우디 5성급 포시즌즈 호텔 한미글로벌 PM 용역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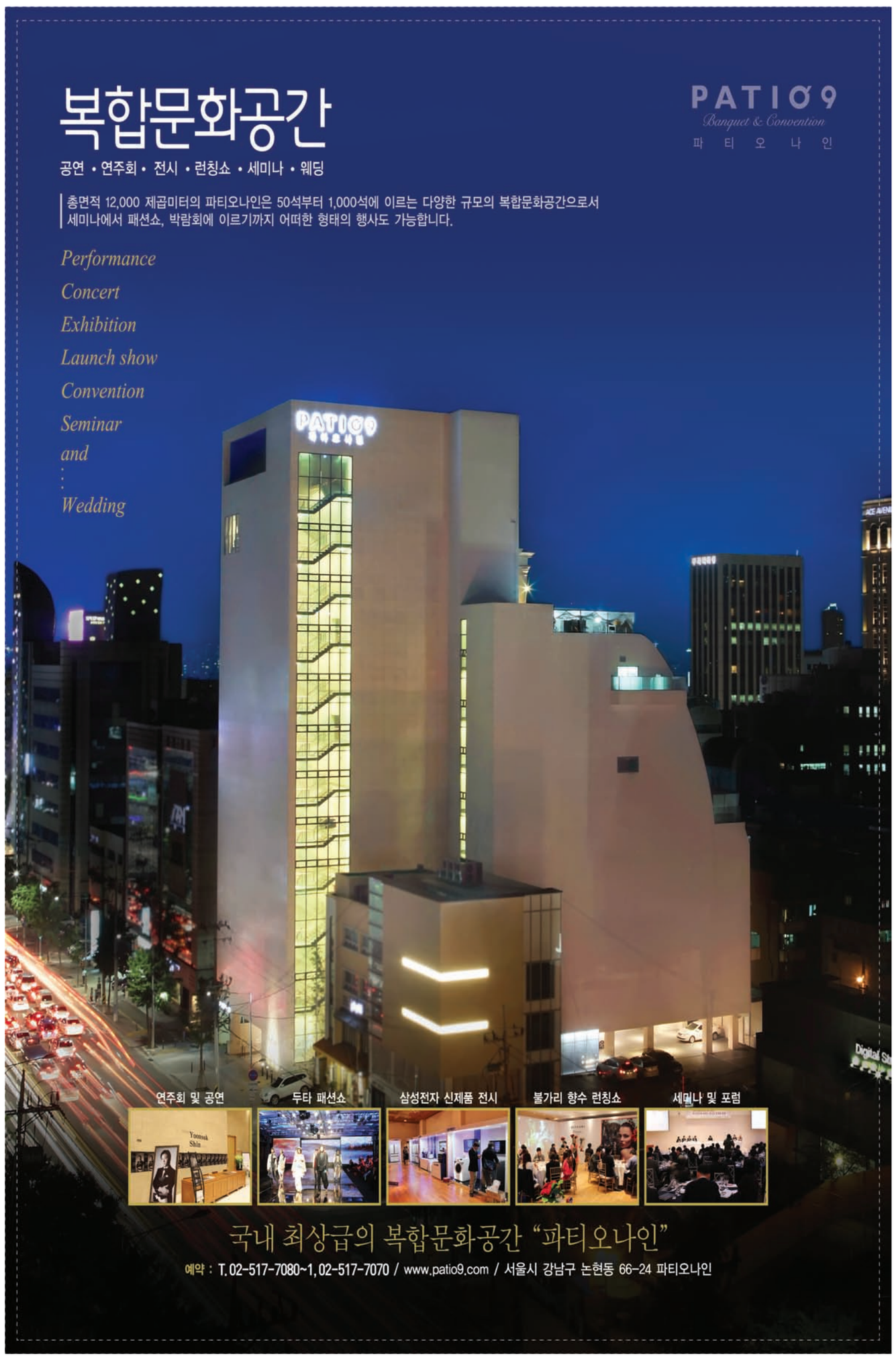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제다(Jeddah)에 설립되는 5성급 포시즌즈(Four Seasons) 호텔의 PM(Project Manager·통합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호텔은 사우디아라비아의 MIDAD 부동산 투자개발회사(MIDAD Real Estate Investment & Development Co.)에서 개발하는 5성급 호텔로 제다시 국제공항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제다 포시즌즈 호텔은 21만8000㎡ 면적에 31층 높이로 총 275실의 호텔 객실과 25실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5억 달러(5400억원), 한미글로벌의 PM 용역 수주액은 549만 달러(57억원)다. 공사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48개월이다.



포시즌즈 호텔 조감도.

구성헌 기자 carlove@



美 '달러 스토어' 유통 공룡 나오나

'달러트리', 업계 2위 '패밀리달러' 인수전에 뛰어들자
업계 1위 '달러제너럴' 몸값 높여 97억 달러로 제시
달러제너럴 인수땐 매출 280억 달러… 월마트 앞서



미국 달러 스토어 빅3 현황

	달러제너럴	패밀리달러	달러트리
설립	1939년	1959년	1986년
매장수	1만1000개	8100개	5080개
직원	10만600명	3만4000명	1만7600명
매출(연)	180억 달러	103억 달러	78억 달러
시가총액	194억 달러	90억 달러	112억 달러

달러제너럴은 18일(현지시간) 패밀리달러스토어에 97억 달러 규모의 인수안을 제시했다. 블룸버그

미국 최대 '달러 스토어' 달러제너럴이 업계 2위 패밀리달러스토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달러제너럴은 부채를 포함해 총 97억 달러(약 9조9000억원) 규모의 인수안을 패밀리달러에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달러제너럴은 패밀리달러에 주당 78.50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업계 3위 달러트리는 패밀리달러에 주당 인수가로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74.50달러를 제시했다.

총액을 고려하면 달러제너럴의 인수안은 달러트리가 제시한 85억 달러에 비해 22억 달러가 많은 것이다. 달러제너럴은 패밀리달러를 인수하면 앞으로 3년에 걸쳐 연 5억5000만~6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릭 드레일링 달러제너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패밀리달러가 인수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원한다"면서 인수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달러제너럴이 패밀리달러를 인수하면 달러트리에 비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푸남 고얄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달러제너럴은 패밀리달러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면서 "달러트리가 인수하는 것에 비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러트리는 대부분의 품목을 1달러에 판매하며 중산층 고객 비중이 높지만, 달러제너럴과 패밀리달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달러제너럴이 패밀리달러 인수에 성공하면 연 매출 280억 달러의 거대 유통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매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를 앞서게 된다.

최근 경제회복 기대로 '달러 스토어'의 매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유통업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월마트 역시 올해 6억 달러를 들여 '네이버후드마킷'을 대폭 늘리는 등 골목상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패밀리달러 인수전의 최종 승리자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과 넬슨 펠츠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아이칸은 최근 패밀리달러의 지분을 꾸준히 늘린 뒤 회사 매각을 촉구했다. 아이칸은 패밀리달러의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으며 펠츠의 트리안펀드매니지먼트는 7.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시장은 달러제너럴의 인수 제안을 반겼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달러제너럴의 주가는 11% 급등했고, 패밀리달러는 4.9% 올랐다. 달러트리의 주가는 2.4% 하락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브라운 총탄 6발 맞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한 교회에서 의학수사관(왼쪽)이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마이클 브라운(18)에 대한 2차 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2차 부검 결과에서 수사관은 "브라운이 머리에 2발, 오른팔에 4발 등 총 6발의 총탄을 맞았으며 그 중 정수리에 쏜 마지막 한 발이 브라운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이 시위에 과잉대응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퍼거슨/EPA연합뉴스

"美증시 상승랠리 끝났다"

로이트홀트·바클레이스 보고서

로이트홀트그룹과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S&P500지수 편입 기업의 순이익이 지난 5년 동안 연 17% 넘게 증가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순익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글라스 램지 로이트홀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기업의 순익 증가율 둔화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연 25%의 상승률을 기록한 주식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상승폭이 3%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나선 글리오나 바클레이스 투자전략가는 "해외 수요가 줄면서 S&P500지수는 올해 남은 기간 1%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S&P500지수는 올들어 5.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폭은 16%였으며, 2012년에는 12% 올랐다. 올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20회가 넘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증시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늘어난 이후 최근 헤지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신중론자들은 특히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에 주목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데이비드 라페르티 나티시스글로벌애셋매니지먼트 수석 투자전략가는 "양적완화(QE)는 그동안 시장의 순풍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이 순풍은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순익 성장률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中 "국영기업 CEO 연봉 삭감"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막대한 연봉에 제동을 건다.

중국 중앙정부는 18일(현지시간) 웹사이트 성명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국영기업 임원들의 불합리하게 높은 소득은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들 최고경영진에게 정부 규정이나 회사 재무정책에서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과도한 지출(고급 승용차와 호화호텔 숙박비 등)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 산하 국영기업들은 연봉 삭감 등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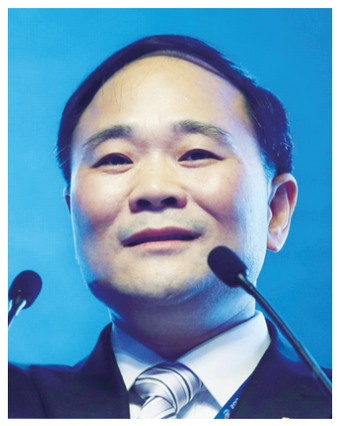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그가 지난 2012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적극적으로 펼치는 반부정부패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비리 혐의가 적발된 관리의 축출은 물론 관용차와 호화연회 등의 낭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더

中 지리車 리슈푸 회장 "시장 완전히 개방해야"

외국업체 합작사 형태 진출
지분도 50% 이내로 제한
"경쟁 가속화 차 가격 낮춰"
자회사 볼보 신차 26일 공개



중국 최초 민간자동차업체이자 스웨덴 볼보의 모회사인 지리자동차의 리슈푸(사진) 회장이 중국시장이 외국업체에 더 개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8일(현지시간)자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처럼 차를 생산하길 원하는 모두가 그럴 수 있도록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 회장은 "이는 우리뿐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것"이라며 "시장이 완전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상 외국 자동차업체들에 더 많은 지분을 허용하면 경쟁을 가속화해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현지 업체와 합작해야 하며 합작사 지분도 5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지리는 지난 상반기 자동차판매가 18만7186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수치다. 회사는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 브랜드 숫자를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자회사인 볼보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리는 지난 2010년 포드에 18억 달러(약 1조8300억원)를 주고 볼보를 인수했다.

볼보는 지리차 인수 이후 첫 개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90 차기 모델'을 오는 26일 공개한다. 새 XC90은 운전자가 추월시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넣는 등 안전을 강화했다. 또 전자모터 부스터를 채택해 엔진파워를 기존보다 두 배로 늘렸다.

리슈푸 회장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한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중국 승용차시장에서 현지 업체 점유율은 지난 상반기에 38%로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지난 3월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해외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슈푸 회장은 지난달 항저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IT나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개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볼보의 차기 XC90은 애플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퍼거슨 사태 악화일로…"전쟁터 같다"

중무장 경찰과 주민들 대치
경찰 불성실 대응 사태 키워
"시위 진압 지나치다" 지적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무장한 경찰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가 주방위군 투입에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대 흑인 청년의 총격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된 이번 사태는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주민들과 중무장한 진압 경찰 간 대치는 격화하고 있다. 지난 9일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던 마이클 브라운(18)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퍼거슨시의 외할머니 집 근처에서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경찰은 총을 발사한 경관의 신원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퍼거슨시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 6일째인 15일 발포자인 대런 윌슨 경관의 신원과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사태의 불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은 브라운을 당일 오전 인근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몇 시간 만에 절도 사건과 총격 사건은 무관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16일 퍼거슨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을 금지했으며 17일에는 주방위군 동원령을 내렸다.

윌슨 경관은 브라운이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하려 했으며, 정당방위 주장과 달리 브라운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가족들이 요청해 별도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브라운이 머리에 2발, 오른팔에 4발 등 총 6발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지난 199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제2의 로드니 킹'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과속 운전으로 도주하는 흑인을 무차별 폭행한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현지 언론은 당국의 사태 진압 과정 역시 지나치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연막탄과 최루탄은 물론 섬광수류탄과 소총을 갖췄으며 군용트럭과 장갑차까지 투입됐다.

정치권 또한 당국의 과도한 시위 진압을 지적하고 있다. 존 루이스(민주·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은 17일 NBC에 출연해 "퍼거슨시의 광경은 마치 이라크 바그다드나 다른 전쟁터를 보는 것 같다"면서 "퍼거슨시는 중국이나 러시아 콩고가 아닌 미국의 일부이며 평화로운 비폭력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포트

선진국채권 1주일새 5조원 유입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선진국 채권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 정보업체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의 18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선진국 채권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46억9000만 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했다. 북미 채권펀드에 24억9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최근 3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유럽 채권펀드에 들어온 자금도 19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유럽 경제가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5일 2.3%대로 14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제로(0) 수준으로 하락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독일 국채(분트) 10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다.

美 아이 양육 2억5000만원 필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24만5000달러(약 2억5000만원)가 필요하다고 CNN머니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중산층 커플 기준으로 지난 2013년 태어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이 같은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전년에 비해 2%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 등록금은 제외됐다.

양육비용은 아이를 키우는 지역과 커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CNN머니는 덧붙였다.

북동부 지역 도시에서 아이를 18세까지 양육하기 위해서는 45만5000달러가 들어간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교외 지역에서는 14만5500달러가 필요하다.

농무부는 주택 가격을 포함해 식품 교통 의류 헬스케어 교육 등을 반영해 양육비용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 유아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서 생후 17개월된 아이를 한국의 어린이집과 같은 데이케어센터에 보내기 위해서는 매월 1380달러를 써야 한다. 이는 월 주택임대료와 맞먹는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中 온라인 판매 샴푸 62% 가짜

중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샴푸 8개 중 3개만 정품인 걸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망이 보도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기자들이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샴푸 8개를 구입한 결과 5개가 가짜였다고 경제망은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구매한 샴푸를 사용한 이후 두피가 가렵고 발진이 생기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장쑤성의 한 피해자는 "온라인 샴푸 가격이 시중가 40위안(약 6600원)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 한 번에 대량구매를 했는데 이 샴푸를 사용한 이후 머리가 가려워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자가 급증하자 장쑤성 약품관리당국이 가짜 샴푸 유통업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장쑤성과 산둥성 일대에서 가짜 샴푸가 만들어져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1년에 온라인 상점을 열고 가짜 샴푸를 판매했으며 총 27개 도시 시중 상점에도 샴푸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중 "정부 미운털 박혀 대우그룹 해체"

〈前 대우그룹 회장〉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이달 출간

15년전 워크아웃 당시 김 前회장 증언 담은 대화록
"경제관료와 충돌…부실 낙인찍어 GM에 헐값매각"



김우중〈사진〉 전 대우 회장의 그룹 해체에 대한 비공개 증언이 15년 만에 책을 통해 알려진다.

김 회장은 지난 4년간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교 교수와 서울,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20여차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이를 토대로 저술한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오는 26일 출간할 예정이어서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9년 8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이후 오랜 기간 침묵해 온 김 전 회장은 이 책을 통해 솔직한 심경을 전한다.

저자인 신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IMF 체제에 대해 나름대로 일관되게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나조차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고, 제대로 알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1967년 김 전 회장이 설립한 대우실업이 모태인 대우그룹은 30여년 만인 1998년 41개 계열사, 396개 해외법인에 자산총액이 76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계 2위의 그룹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다 1999년 8월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뒤 해체됐다.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대우자동차의 부실로 몰락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되는 '김우중과의 대화'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과 주장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신 교수는 이 책에서 당시 정부가 국민경제에 더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우자동차를 제너럴모터스(GM)에 헐값에 넘겼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국 경제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는 당시 경제관료들과의 충돌이 원인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성 문제가 외부로 본격적으로 불거질 당시 경제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우그룹의 자금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5년 6월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이후 주로 베트남에 머물면서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진행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GYBM) 양성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서울지하철 첫 열차 기관사 조상호씨
"40년전 그날부터 현대사 함께달려"

1974년 8월 15일 1호선 개통
"영부인 피격 소식 듣고 충격"



서울지하철 개통 40년을 맞아 첫 열차 기관사 조상호〈사진〉씨가 새삼 화제다.

1974년 8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의 개통을 알리는 첫 열차가 청량리역을 떠났다. 열차는 서울역을 거쳐 구로역에 도착했다. 당시 서울의 첫 지하철 열차의 운전대를 잡았던 이가 기관사 조씨다.

그는 개통일 당시를 떠올리며 "40년간 개통 순간을 되새길 때마다 기억이 생생하다"며 "첫 열차를 운행했던 것은 기관사로서 큰 영광이었다"고 회고했다.

40년 전 그날 조씨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열차 개통을 기념하려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내빈들이 청량리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시각이 가까워 왔지만 대통령 내외는 오지 않았다.

조씨는 "바로 그날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영부인이 피격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라디오 뉴스를 듣고 알았다"며 "서울에 지하철이 처음으로 달리기 시작한 날 현대사의 질곡을 함께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기관사는 수천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후배 기관사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마오쩌둥 능가하는 덩샤오핑 추모열기

中, 탄생 110주년 기념활동
"시진핑 개혁개방 적통 자임"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과 덩샤오핑〈사진〉 탄생 110주년을 맞는 중국의 분위기가 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마오쩌둥 추모 분위기는 다소 차분한 반면 덩샤오핑 추모 분위기는 열광적이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덩샤오핑 탄생 110주년 추모 열기는 베이징, 상하이, 쓰촨성,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성 단위 좌담회, 창작활동, 사진전, TV 드라마 등 기념활동이 최소 15개나 열렸다.

차세대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는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는 16일(현지시간) 좌담회에서 "우리당이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사업 중점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옮겨야 하는 전환기에 덩샤오핑 동지는 직접 경제특구 건설을 제창하고 광둥성이 이를 선도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극찬했다.

16~17일 덩샤오핑의 고향 쓰촨성 광안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군중문예공연이 열리는가 하면 인민망은 '덩샤오핑 추모사이트'를 만들었다. 공산당신문망은 인터넷 헌화게시판도 개설했으며 현재 1만3000명의 누리꾼이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추모행사도 시행되고 있으나 덩샤오핑 추모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초라하다는 평가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추모 분위기 차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 국정지표로 제시한 '개혁개방 심화'가 사실상 덩샤오핑의 '적통'을 자임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현대제철 임직원·장애인
'한여름 밤의 어울림 캠핑'

현대제철은 여름방학을 맞아 임직원 자녀들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어울림 캠핑'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한여름 밤의 어울림 캠핑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임직원 자녀 30명과 지적 장애인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 유일레저 캠핑장에서 진행됐다.

임직원 자녀들은 인천 노틀담복지관의 지적장애 청년들과 텐트를 직접 만들고, 물속에서 펼쳐지는 종이배 레이스와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협동과정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진정한 어울림의 의미를 찾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받은 브라질 출신 아빌라
"美명문대 갔으면 부담 커 공부 못했죠"

美·유럽·日 외 국가서 첫 수상
16세 국립 순수응용수학원에
21살때 박사학위 취득하기도
현재 佛국립과학연구소 근무



브라질 출신 연구원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아르투르 아빌라〈사진〉. 그는 브라질 출신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석학연구원으로 미국·유럽·일본 외 국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첫 필즈상 수상자다.

아르투르 아빌라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ICM) 공동인터뷰에서 "연구기관 내부의 개방된 연구문화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 국립 순수응용수학원(IMPA)에 16세에 들어가 21살에 박사 학위를 따냈다"며 "IMPA에서 수학에 몰두할 수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빌라 석학연구원이 속한 IMPA는 연구소이자 교육기관으로 원하는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특히 강의를 듣다가 자격이 되면 공식 학위 과정에 등록해 학위도 받을 수 있다.

그는 "미국의 명문대에 갔다면 아마 부담감에 압도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IMPA에서는 교수님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잘 대해줬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수학자는 학부를 고국에서 마쳤더라도 '수학 선진국'인 미국·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하지만 아빌라 석학연구원은 IMPA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뒤에야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소(CNRS)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그는 "CNRS에서의 연구는 나로 하여금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다"며 "IMPA에서 수학 기술을 배웠다면 프랑스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 내 연구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두 나라에서의 연구 생활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IMPA에서의 연구는 내게 수학자로서의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며 "이제 필즈상을 받았으니 내 존재가 브라질 수학계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수학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구성헌 기자 carlove@

"테러 가담하면 호주인 국적 박탈"

토니 애벗 총리 경고 메시지



토니 애벗〈사진〉 호주 총리가 호주 국적 취득 후 이라크 등지에서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일부 이민자들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8일(현지시간) 시드니 2GB 라디오에 출연한 애벗 총리는 "모든 호주인은 '호주팀(Team Australia)'의 일원이 돼야 하고 호주팀에 합류하지 않으려면 이 나라로 이민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호주 국적을 가진 일부 중동계 이민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애벗 총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에서는 지하드(이슬람성전)에 참전 중인 시드니 출신 테러리스트 칼레드 샤루프의 어린 아들이 참수된 시리아군 병사의 목을 양손으로 든 사진이 현지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애벗 총리는 "모든 호주인은 호주의 이익과 가치 그리고 사람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며 "정부는 테러단체에서 싸우려고 중동으로 가 급진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호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중동에서 테러조직에 가담한 호주 국적자에 대해 각종 복지 혜택을 박탈하고 귀국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대테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엔터 회사 '비젼웍스글로벌' 英아세소 그룹과 업무협약



지역기반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문회사인 비젼웍스글로벌은 최근 테마파크 및 레저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아세소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젼웍스글로벌은 아세소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 대기 시스템(virtual queuing system)에 대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가상 대기 시스템은 방문객을 대신해 가상의 줄을 서는 동안 방문객은 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대기 시간이 만료되면 체크인과 동시에 탑승하는 시스템이다.

최진욱〈사진〉 비젼웍스글로벌의 대표는 "아세소 제품과 시스템은 테마파크, 워터파크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장 서덕호 △활용촉진과장 손경윤 △산업분석과장 신동준 △전자부품과장 김정화 △세계무역기구과장 김호철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김완기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최진원 △원전환경과장 박동일 △개발지원2팀장 신재행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4급 전보 △예금대체투자팀장 홍사찬

◆특허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진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장 박호형 △특허심사3국 금속심사팀장 김기룡

◆NH농협증권 ◇전보 △채움금융팀장 차진호 △고객지원팀장 백명숙 △분당지점장 김대중

◆남도일보 △경영본부장 전영곤 △기획사업국장 김상균 △편집국 문화·체육·특집 총괄 오치남 △부국장 겸 정치부장 박재일 △부국장 겸 경제부장 김용석 △사회부장 김명식 △제2사회부장 김경태

부음

▲임병화(수원대학교 교수)·병천(코스콤 경영혁신노사공동TF팀 과장)씨 부친상, 김민경(김앤장법률법인 연구원)·송영진(스칸디나비아코리아 대리)씨 시부상 = 18일, 횡성장례문화센터 2층 1호실(강원도 횡성군 학오로 56),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33-344-4449

▲강성래(한국일보 편집국 종합편집부 차장)·윤상호(순창군청)씨 장모상·김종인(삼성반도체)·수경(의정부시청 감사과)·미경씨 모친상 = 18일 오후 6시 15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03

▲김우정·호정·현정씨 부친상, 왕한스·허선(삼우설계 해외사업팀 소장)씨 장인상 =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0일 오후 1시, 02-2030-7908

▲강일규(공무원)·재규(충남지역신문협회 국장)·상규(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지원본부장)·선화(유성생명과학고 교사)씨 부친상 = 18일 오후 1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42-660-6660

▲이정명(강원도청 테니스팀 감독)씨 부친상 =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31-384-1248

▲임규광(TJB 대전방송 정책실장)씨 부친상 = 18일 오전 8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0일 오전 9시, 042-600-6666

40년간 '퇴계연구' 이광호 연세대 교수 퇴임

'퇴계 연구자'로 살아온 동양 철학의 대가 이광호(65)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오는 29일 퇴임한다.

이 교수는 지난 40여년간 퇴계 이황(1501~1570) 연구에 몰두해왔다.

그는 "퇴계는 유학의 학문관을 가장 잘 정립하고 몸소 실천한 학자다. 연구는 많이 했지만 애초 목표대로 학문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1975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해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983년부터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철학과, 중국 저장대(浙江大) 한국연구소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01년부터 연세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그는 퇴계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인 '성학십도'(聖學十圖) 등 중요 문헌을 쉬운 말로 번역해 출간했다.

또한 저서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에서는 퇴계와 율곡 이이가 주고받은 편지와 시문을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에너지 절약, 미래를 위한 유산

젊은 발언대



권 준 석
중부발전 세종천연
가스발전소 인턴사원

지난 100년간 도시 기온 1.8도 상승
여름철 냉방수요 기온 1도 오르면
전력사용량 100만~120만KW 늘어
전기 절약,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올 봄 에너지 공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입장이 되었다. 발전회사에 입사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기절약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고 있는 스스로를 느낀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세종천연가스발전소는 최근 준공된 발전소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콘센트 대기전력 차단장치, 초절전 LED 적용 등으로 '절전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발전소만 이런 것은 아니다. 이는 발전사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들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정부와 발전회사 등 직접적 관계자들의 노력 외에도 국민 모두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올해는 발전소 9곳이 새로 준공된 데다 지난해 가동을 멈췄던 3기의 원전도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전력공급 사정이 한결 나아졌다. 또한 8월 평균기온 전망이 25.1도로 전년보다 2.2도 낮아 전력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블랙아웃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 2011년 기준 배출량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산업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노력과 함께 전력소비를 줄이려는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 평균기온은 1.8도 상승했다. 이는 지구 평균 상승온도 0.75도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냉방수요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100만~120만KW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전기절약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에너지 사용 합리화 문화로 정착된다면, 눈앞의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발전회사 직원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업무수행과 발전소 내 전기절약을 위해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 모두에게 전해져 현명한 에너지 소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교황이 떠난 자리

1891년 당시 교황 레오 13세는 가톨릭 주교들에게 회칙(回勅·encyclical letter), 즉 내부 서신 하나를 보냈다.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우리말로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of the revolutionary change)'라는 제목의 회칙이었다.

회칙에서 교황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제도의 비정함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비정함 속에서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교황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에 내재된 비정함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일부의 주장처럼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그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었다. 교황에 있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신의 뜻이었다.

그의 답은 오히려 공동체와 국가, 특히 공동체의 교정기능에 있었다. 누구든 돈을 벌되 필요 이상의 부는 공공선과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12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 가톨릭의 진보적 정신을 다시 들었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정신을 존중하되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비정함을 경계해야 하며, 공공선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은 레오 13세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물질주의의 유혹과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 싸우라?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교황의 말씀 같지 않게 느껴질 만큼 강하다. 바티칸 출입기자들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이라 했다고 한다.

또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 역시 강하다. 문맥 그 자체만 보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비난하는 진보정치인들의 정치적 구호를 듣는 것 같다.

무엇이 교황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게 했을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최하위의 행복지수, 그리고 안전사고로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는 나라, 교황이 말하는 바로 그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무례한 일이 되겠지만 교황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한 번 보자. 사회비 지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 국내총생산의 12% 남짓 된다. OECD 국가 평균인 25%의 절반 수준이자, 35% 안팎에 이르는 스웨덴과 프랑스 등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시장의 비정함을 교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이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다. OECD 국가 최장의 노동시간에 공동체와 공공선을 고민할 시간도, 또 사회봉사를 위해 나설 시간도 없다. 기부문화 역시 마찬가지, 돈을 쉽게 내어 놓을 수가 없다. 사회안전망과 금융구조가 취약한 상황에 있어 언제 다시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쌓고 또 쌓아도 불안한 상황이다.

반면 시장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비정함 역시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띤다. 국가는 시장에서의 승자에 의해 포획되어 있고, 교회마저 그들이 쌓은 돈을 축복하며 그들의 돈으로 궁궐 같은 성전을 짓고 있다.

전 국민이 교황을 연호하는 순간에도 세상은 언제나처럼 돌아갔다.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싸움을 위한 싸움을 계속했고, 정부는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부동산 대책 등 시장의 비정함을 더할 정책들을 쏟아 놓았다. 연금도 낮은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적 연금을 다시 더 깎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황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교황이 떠난 뒤 고개는 다시 무거워진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가와 교회마저 포획된 마당에 누가 이 싸움을 이끌 것인가?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라도 있었는데, '죽음의 문화'와 싸울 사람들은 과연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길은 하나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교황이 떠난 자리, 그와 함께 심은 희망의 씨가 자라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와글와글

가난할수록 비만…몸 관리할 여력이 없어요



○…소득 상위 25%와 하위 25% 계층 간 비만 증가율이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난할수록 살이 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부유할수록 자기관리 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다는 1차적 기쁨을 주는 음식에 돈을 소비한다.

반면 부자들은 비싸고 좋은 식단으로 소식하거나 많이 먹어도 고급 헬스장 다니면서 몸을 관리한다", "라면만 해도 싸고 칼로리는 높지 않나", "여유 없이 먹고살기 바쁜데 칼로리니 뭐니 따질 겨를이 어딨나", "부자들은 웰빙 찾고 가난한 사람은 배 채우기 급급", "미국에서 극빈층은 맥도날드 1달러짜리 치즈버거나 1달러 상점 냉동식품을 사먹는다. 당연히 기름지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각종 수상 레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예약이나 환불·부상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정책이 허술해 고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거의 사기 수준이다", "해상펜션 예약했는데 끝까지 환불 안 해 주고 괜찮다고 우기더라. 결국 입실하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비 와 불안해서 나왔다", "매년 똑같이 당하는 거 보는데 그럼에도 해가 바뀌면 똑같이 당하더라. 대책이 없다. 안 가는게 답", "안전교육도 없고 사람 죽어도 나 몰라라 한다고 그냥 가지 말라 던데", "팬션이나 수상 스포츠 하는 곳들 특성상 장소가 제한적인데, 문제는 해당 지역 관할 공무원 일가 친척들이 그 동네 토박이인 경우가 많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목격 여고생 진술 들어보니
2. 아이폰6 콘셉트 디자인, 커지고·얇아지고 무베젤 등장
3. 올 뉴 쏘렌토, 6가지 색상 중 단연 으뜸 '블랙·화이트'
4. 갤럭시노트4, 출시 예정일 임박 유사 스펙 '가짜' 등장
5. 석촌지하차도 동공 추가 발견… 현재까지 벌써 7개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미니 6집 앨범 쇼케이스 연 카라



배국남닷컴은 18일 그룹 카라를 만났다. 카라는 미니 6집 앨범 '데이 앤 나잇(DAY&NIGHT)' 쇼케이스를 열고 가요계 컴백을 알렸다. 한승연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박규리는 "긴장되고 설렌다"며 "타이틀곡 '맘마미아'를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개 오디션 '카라프로젝트'를 통해 카라에 합류한 새 멤버 허영지는 "언니들과 데뷔 무대를 하게 됐다"며 "떨리고 긴장되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카라는 타이틀곡 '맘마미아'와 수록곡 '소 굿(So Good)'으로 파워풀한 안무를 선보이며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박규리는 "밤의 흥겨운 분위기와 느낌을 담았다"며 "큰 변화를 준다기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루즈하고 내추럴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했다"고 앨범 콘셉트를 전했다. 이어 "카라는 섹시한 곡을 해도, 귀여운 곡을 해도 에너지 넘치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다"며 "뭘 해도 야해 보이지 않는 것이 카라만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데스크 칼럼

금융당국, 신뢰를 얻어라



김 덕 헌
부국장 겸 금융시장부장

얼마 전 금융권 CEO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자리를 같이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금융권 현안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이분은 금융감독 당국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평소 기자들에게 솔직하다는 이분은 "감독당국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분의 주장은 이랬다. 대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채권단이 협의 끝에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 금융감독 당국이 물밑으로 자금 지원을 하도록 요구해 놓고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행정지도와 공정위의 담합 사이에 낀 보험사의 불만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보험가격은 자유화됐지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료는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서민의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명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 규제를 또 다른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부처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가 지난 10여년간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 6건에 달한다. 특히 공정위는 2011년 16개 생보사에 대해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생보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규제 당국의 이중 잣대로 얼마나 많은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전자상거래 결제를 간편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일명 '천송이 코트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3월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에도 여전히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관련 규제를 풀었다. 해외 소비자들의 직접구매를 편리하게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카드사는 규제 완화에 따른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연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전례에 없는 강력한 대책을 놓았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정보 유출 위험 지적에도 9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물론 금융당국은 기술, 보안, 재무 능력을 갖춘 PG사에 한해 신용카드 정보 저장을 허용하겠다고 나름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또 PG사에 대한 검사를 기존 2~6년 주기에서 2년에 1회로 강화하고 사고 때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금융회사(은행 20억원, 카드사 1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가 기술, 보완, 재무 능력이 부족해서, 검사와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적어서 발생했던가. 막상 PG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카드사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어 불안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권이 보신주의에 빠져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지만, 현재 여건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실 위험이 큰 만큼 금융권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금융권을 다그쳐도 보신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시장 발전에 근간을 둔 합리적 정책 수립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한다면 '못 믿을' 금융감독 당국이란 비난은 안 받을 것이다.

dhkim0715@

객석

산이 전해주는 것들



박형수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새벽 산행은
나에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온누리에
사랑을 설파하라네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께
자비를 배풀라 합니다

삼신할머니는
조상에 은덕을 쌓아라 합니다

천국이 보이며
긍정의 에너지가

감사와 사랑으로 전율이 흐릅니다
주말 산행은
한권의 책입니다
　자연의 오묘한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해가뜨다, 비가오다
바람불다, 안개자욱하다

장엄한 소설이 되었다가
순간순간 느껴지는 수필이었다가

내 마음의 심금을 울여주는
시집입니다

산은 나의
정원입니다

영롱한 이슬방울로
아침을 맞이하게하며

생명의 신비로
뽀송뽀송 탄생의 경외심을 줍니다

바람따라 새들도
운명교향곡을 불러주고

철따라 피는 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폼내고

누가 뒤질세라
자기만의 향기를 풍깁니다

〈중략〉

지금 이 순간에도
산이 나를 부릅니다

기자의 눈

외환·하나 통합, 공감이 우선이다



박선현
금융시장부/
sunhyun@

"진정한 대화는 공감이 우선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중 해미성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황 앓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큰 신드롬을 일으켰다. 낮은 자세에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그의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두고 첨예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양측은 핑퐁게임을 하듯 "수익성 악화로 인해 조기통합이 불가피하다"입장과 "조기 통합은 2·17합의서를 위반하는 일"이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태 회장이 조기통합을 언급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단 한번도 노사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인해 금융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환은행은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외환은행 순이익은 3600억원으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3070억원)을 간신히 앞섰다. 사측이 조기통합의 대의적 명분으로 내세운 '수익성 악화'가 수치로써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조의 불안도 당연하다.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이후 주요 보직에 친(親) 하나금융 인사가 줄줄이 올랐다. 조기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외환은행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김한조 행장이다. 종교적 믿음을 달리하는 비신자들까지 교황에게 열광한 것은 그의 '진정한 리더십'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단상에서 조기 통합을 외치는 수장이 아닌 직원과 같은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두선의 나비효과

교황 방한, 한류의 상승효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이 있던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새벽 4시부터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한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현장에 모인 인원은 바티칸 추산 80만명. 2002 한일월드컵 이후 이렇게 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집결한 것은 처음이었다.

교황의 방한을 의미 있게 다루던 외신은 교황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인파의 집중에도 사고, 소란, 쓰레기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는 점은 외신에게 여전히 놀라운 일이었다. "시복식 미사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 매우 인상적인 광경이었다"고 보도한 AP통신을 비롯해 교도통신, 영국 가디언지,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우리 사회에 주목했다.

낮은 자세로 임하는 교황의 방한이 시련 속 우리 사회에 '힐링'의 의미로 작용했다면 교황을 진정으로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세계인의 눈에 인상적으로 비춰졌다. 단순히 교황에 환호하는 것을 넘어 교황 방문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적인 긍정의 분위기, 질서정연함 속에 교황의 행보에 주목하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천주교를 믿지 않아도 교황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희망을 찾는 열정 등은 우리가 가진 긍정 에너지 그 자체였다.

우리 사회에 외신이 주목했던 적이 또 있었다. 지난 3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 당시였다. 2012년 개봉돼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었던 '어벤져스'의 한국 촬영은 우리 사회를 전 세계에 투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과거 영화 '킬빌', '라스트 사무라이' 등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는 중국, 일본을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중국과 일본은 곧 아시아 문화로 대변됐다. 그런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세계적 종교, 문화 행사들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우리의 수용 자세가 참 인상 깊다. G20 정상회담 등 수많은 정상들의 방한에도 국제적 인식의 고취, 경제 지표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는 있었지만 교황의 방한, '어벤져스2' 서울 촬영 등 종교, 문화로 인한 파급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 한류가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며 우리의 역량을 보여준 것처럼 한류의 근원지인 우리 사회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행동과 사상에서 우월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미국 ABC 드라마 '로스트'에는 '한강대교'가 시골 냇가의 작은 다리만도 못하게 묘사된 바 있다. 동양계 할리우드 스타 대니얼 대 김 등 한국인 설정 배우들의 한국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우리 배우 김윤진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세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을 보며 광화문 광장의 정갈함과 주변 인프라의 선진화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오는 2015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2'에서 묘사될 한국은 적어도 '로스트'의 '한강대교'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일련의 문화 행사가 보여줄 우리의 선진화된 문화 인식은 '한류'의 힘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고취시키며 국격을 올리는 지름길로 작용할 것이다.

문화부 기자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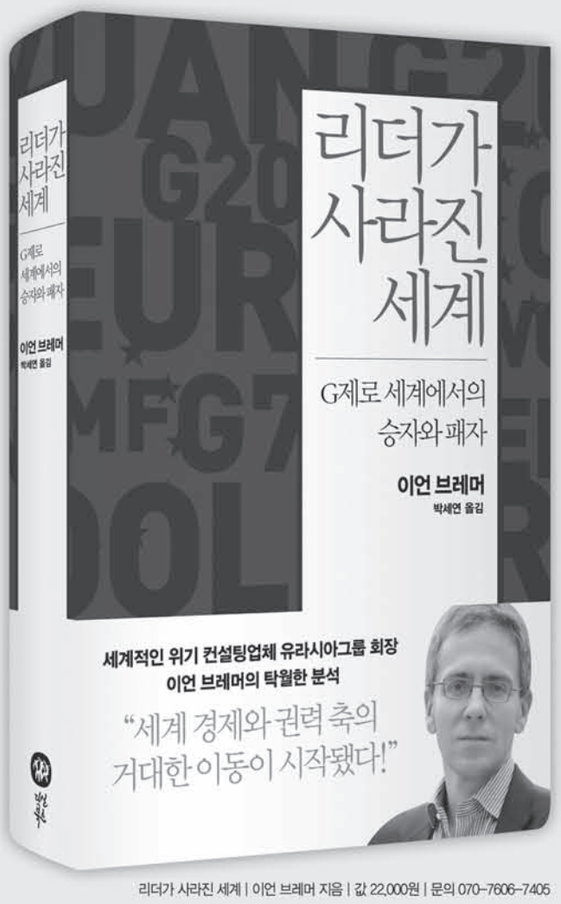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글로벌 리더가 사라진 G제로 세계,
당신은 승자인가 패자인가?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를 강타할 위기가 시작되었다!

G0(G제로)시대… 한국의 승부 전략은 균형잡기다. - 조선일보

국제질서의 미래를 예측할 때 『리더가 사라진 세계』는 반드시 인용해야 할 책이다. - 중앙일보

저자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국가와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 동아일보

이 책은 까마득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독자에게 시야를 틔워주고 방향을 잡아준다. 거시적인 시각을 담은 책이지만, 챕터마다 국가의 사정을 자세하게 분석해 미시적인 접근도 이끌어준다. - 매일경제

저자는 『리더가 사라진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진공상태를 'G제로(zero)'라고 부르면서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G제로 시대'에 벌어질 혼란과 갈등, 국가와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 한국경제



▶ 세계 최고의 위기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 그는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초청받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번에 그가 쓴 『리더가 사라진 세계』는 다가올 거대한 위기에 먼저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리더가 사라진 세계 | 이언 브레머 지음 | 값 22,000원 | 문의 070-7606-7405

“7년 전 호흡 정유미 출연소식에 고민 없이 결정”



KBS ‘연애의 발견’ 에릭

‘케세라세라’ 이후 두 번째 만남
현장서 장난치며 재미있게 촬영
11살 연하 성준과 극중 삼각관계
모니터 보니 아기피부…반할 뻔

에릭(문정혁)이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했다. 에릭은 KBS 2TV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극본 정현정, 연출 김성윤 이응복)’에서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남자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로맨틱한 강태하 역을 맡아 열연한다.

에릭은 “지난 3년간 본의 아니게 작품을 못했다. 신화로 활동하는 기간이 있었다”며 “일부러 활동을 안 했다기보다 당시에 신화 활동이 중요했다. 사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는 작품도 없었다”고 오랜만에 컴백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에릭은 자신의 실제 성격을 털어놓으며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유미가 큰 역할을 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항상 드라마를 들어갈 때 새로운 상황을 접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격상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며 “이번 작품은 정유미씨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두 번째 호흡이라 편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본 리딩 전에 ‘나 이제부터 오빠에게 반말할 거야’라고 하더라. 그래서 좀 더 빨리 친해진 것 같다”며 “현장에서 장난치면서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릭은 극중 정유미의 5년 전 남자친구로 분해 호흡을 맞춘다. 에릭은 상대역 정유미에 대해 “7년 만에 만났다. 드라마 ‘케세라세라’(2007)에서 구애를 하고 애정으로 이어지다 먹먹한 상태로 끝나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다”며 “이번에는 알콩달콩한 분위기가 많다. 그때 못 이뤘던 행복한 장면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에릭은 “정유미씨는 상대방이 촬영할 때 더 열심히 한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며 “그래서 상대배우가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반면 에릭은 극중 정유미를 사이에 두고 삼각 로맨스를 펼칠 11세 연하 성준의 젊음에 부러움도 드러냈다.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었는데, 촬영 후 모니터로 편집본을 보니까 아기 피부더라. 반할 뻔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애의 발견’은 연애 2년차에 접어든 한여름(정유미)과 남하진(성준) 커플 사이에 여름의 전 남친 강태하(문정혁)가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로맨스를 그린다.

글/김민정·사진/노진환 기자 mj_kim@



홍콩서 아시아 투어 콘서트

JYJ



4년이 지나도 꽉찬 객석 “해외팬 환대 매번 신기”

새앨범 ‘저스트 어스’ 발매 기념
‘완전체’ 등장에 10만여명 모여
올해안 亞 8개 도시 투어 예정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자주 자주 뵐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공연 꽉 채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JYJ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박유천의 소개로 다음 곡이 이어졌다. 암전이 되자 팬들의 환호가 커졌다.

박유천, 김재중, 김준수로 구성된 그룹 JYJ는 16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JYJ 아시아 투어 콘서트-더 리턴 오브 더 킹(THE RETERN OF THE KING)’을 개최했다.

새 앨범 ‘저스트 어스(JUST US)’ 발매를 기념한 이번 자리에는 총 10만여명의 홍콩 팬들이 붉은 야광봉과 머리띠를 한 채 모여들었다. 시작 전 객석은 조명 하나에도 반응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들뜬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뜨거웠다. 뮤직비디오 속 존재만으로도 높아지는 함성에서 느껴지는 4년의 기다림이었다. 이윽고 세 사람이 무대 위에 첫 등장하자 팬들은 조용히 응시했다. 하나씩 더해지는 보컬에 완전체의 등장을 알렸다.

‘완전체’로서 4년 만에 홍콩을 찾은 JYJ는 이날 새 앨범 타이틀곡 ‘백 시트(Back Seat)’를 비롯해 수록곡 ‘소 소(So So)’, ‘렛 미 시(Let Me See)’ 등을 선보였다. 특히 댄서와 농도 짙은 댄스 퍼포먼스로 물들인 ‘레팅 고(Letting go)’의 무대는 관객 집중도를 높였다.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중은 “원래 이전에 JYJ 앨범을 낼 계획이 있었는데, 내부적 문제 때문에 발매가 미뤄졌다. 그간 개인 활동을 하면서 성장시켜야 할 부분에 각자 노력했다. 세 사람이 4년 만에 뭉쳤지만 부담감보다 편안함을 느끼며 작업했고, JYJ는 안식처 같은 존재다”고 털어놨다. 이날 JYJ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각기 펼쳐 온 역량을 솔로 무대를 통해 뽐어냈다. 개성 있는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김준수는 정확한 포인트를 짚는 가운데 유연함이 돋보이는 안무까지 안정적으로 선보이며 ‘타란탈레그라(Tarantallegra)’ 등의 솔로 무대를 채웠다. 또한 스탠드 마이크를 들고 나타난 김재중은 강렬한 박자의 ‘버터플라이’, ‘마인’ 등 록 공연을 선보이며 애절한 고음을 표현했다. 특히 상의를 탈의한 채 부드러운 웨이브를 선보이는 김재중에게 관람석이 매료됐다. 이어 저음 랩과 고음 가성을 오가는 ‘그녀와 봄을 걷는다’, ‘아이 러브 유(I Love You)’의 무대를 꾸민 박유천은 로맨틱 매력을 발산했다.

JYJ 콘서트를 찾은 관객 매기(36·여)는 “홍콩에서 열렸던 재중과 준수의 콘서트에도 모두 온 적이 있지만, JYJ 세 명의 공연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를 통해 ‘백 시트’를 접했는데 정말 멋지다. 이렇게 공연으로 JYJ를 만날 수 있어서 몹시 행복하다”고 말했다.

JYJ는 홍콩 공연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국 상하이, 베트남, 대만 등 총 8개 도시에서 해외 팬과 만남을 이어 갈 계획이다. JYJ는 최근 4년 동안 지상파 출연 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외 팬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이 증명됐다. 김준수는 “이런 점이 매번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앨범을 발매했으나 방송을 통한 저희 공연 모습은 전무해 해외 팬들 역시 접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매번 해외 어떤 공연이든 환대해 주신다. 방송을 왕성하게 했다면 느끼지 못했을 감사함이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홍콩=이꽃들 기자 flowerslee@



16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JYJ 아시아 투어 콘서트–더 리턴 오브 더 킹’. 사진제공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매출 1000억 영화? 수익률은 저예산이 압도

제작비 200억 ‘명량’ 현재까지 6배
35억 들인 ‘7번방의 선물’ 26배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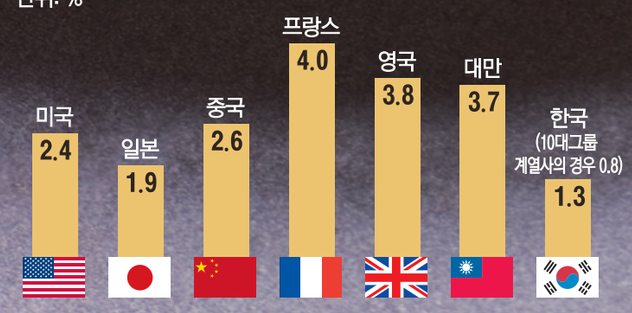
영화 ‘명량’(배급 CJ엔터테인먼트, 감독 김한민)이 17일 기준 1462만(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다. 1301만명의 ‘괴물’(2006)을 넘어 역대 한국영화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고, 1362만명의 ‘아바타’(2009) 최고 기록도 5년 만에 무너뜨렸다.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 최다 일일 평일 관객 수, 최단 기간 100만~1000만 돌파 등 각종 기록을 다시 쓴 ‘명량’은 한국영화 최초로 극장 매출 1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17일까지 ‘명량’의 누적 매출액은 1130억원. 3D 관람 위주이던 ‘아바타’의 1248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영화 중 최고 수익이다. 총 제작비 200억원이 투입된 ‘명량’은 6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렸다. 역대 1000만 영화 중 가장 효율적인 수익을 올린 영화는 류승룡 주연의 ‘7번방의 선물’(2013)이다. 1281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은 91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 같은 기록이 더욱 빛나는 것은 35억원에 불과한 제작비의 26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마케팅비를 포함해도 제작비는 58억원 수준으로 수익률이 무려 15배에 달한다. 결국 중저예산 영화는 실질적 수익 면에서 대작들을 압도한다. 수입 측정에 있어 광고, 해외수출, 개런티 등 복합적 요소는 많지만 거액의 제작비로 흥행성공을 일군 영화들의 손익분기점과 중저예산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입장객 수익에 극명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 1000만 영화 중 1298만명을 동원한 ‘도둑들’은 936억원의 수익을 달성하며 ‘7번방의 선물’보다 높은 수입을 거둬들였지만 145억원의 높은 제작비가 투입돼 순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순제작비 42억원, 마케팅 포함 총 제작비 75억원이 투입된 ‘변호인’이 1137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82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더 대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괴물’, ‘해운대’,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1000만 영화 대부분은 10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들이며 ‘7번방의 선물’, ‘변호인’을 비롯해 제작비 44억원의 ‘왕의 남자’가 중저예산 영화로 대박을 터트린 영화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대작이 흥행을 이끄는 미국처럼 한국영화의 판도가 변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Cover Story 배당의 빛과 그림자

기업 배당 확대 득 될까, 독 될까



"배당비율 너무 적다"

10대그룹 계열사 상장기업 92곳 평균 배당수익률 0.82%에 불과

정부 '배당 강화' 팔 걷어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정책 봇물 가계소득 증대·내수 활성화 노려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외국인 지분비중 높아 효과 미미 강제적 배당, 기업 성장에 악영향

지난달 31일.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중간배당으로 얼마를 내놓을지에 쏠렸다. 그룹의 경영권 승계 흐름과 정부의 배당 확대책 등이 맞물려 증시 투자자들은 삼성이 배당을 높이는 주주 친화적 경영에 나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중간배당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실망스러운 중간배당 규모 탓에 당일 주가도 4% 가까이 하락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배당 강화정책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단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배당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92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배당수익률은 0.82%에 불과하다.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다. 실제 투자로 수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10대그룹 상장 계열사의 배당수익률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인 1.9%의 절반도 안 된다. 미국(2.4%), 일본(1.9%)은 물론 대만(3.9%)이나 중국(2.6%)보다도 낮다.

이에 정부가 배당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을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36%, 대주주는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늘려 개인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의도다. 저금리 시대에 배당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배당 강화정책 드라이브에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4000개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다. 결국 배당 증가가 곧바로 국내 소비 지출로 연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 이 제도는 기업의 배당 증대를 사실상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기업은 수익창출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배당성향 역시 동반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찬성하는 쪽은 "국내 기업들이 유보금을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고 있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는 적정 수준을 넘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해 기업들의 투자와 배당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순이익을 현금으로 쌓아두거나 토지나 부동산으로만 남겨두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이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의 배당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자유경제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현안 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 배당이 가계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투자나 소비로 사용되지 않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시점의 배당은 나중 시점의 배당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 동시에 자산 가치 감소를 초래한다"며 "소비 탄력성이 낮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은 주식에 재투자하거나 본국으로 환수할 수 있지만, 배당 소득이 적은 국내 저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커버스토리 18·19면

“고배당 기업 재평가 계기” vs “과세 커진만큼 투자 줄어”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대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 정책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의 철학이 담겨 있어서다. 특히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확대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최대 3조원 배당 증가

특히 자본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채찍을 통해 기업이 내수에 돈을 풀도록 유도하고,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확대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배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주식시장도 장기투자로 전환할 수 있고, 이는 고령화 사회에 적절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찬성 이유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배당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초과 유보소득과세로, 다른 패키지 정책과는 달리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책이다.

먼저 과세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삼성·현대·LG와 같은 국내 대표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세율은 모든 기업에 10%로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과세방식은 기업들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설비투자가 많은 제조업체는 당기순이익의 60~80%에서 공제항목(투자·임금·배당·납품가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된다.

대신증권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배당 금액이 총 3조416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이 60%가 안 되면서 현금배당성향이 20%를 밑도는 기업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현금배당성향을 20%로 늘린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실

> 저금리 기조 속 안정적 배당
> 주식시장 장기투자 이끌어
> 고령화 사회 수익창구 역할
> 제도 시행 땐 배당 3조 증가
> 주주환원 정책 인식제고 효과

시되면 최대 3조원 수준의 배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기준으로 현금배당성향은 16.4%에서 21.0%로, 현금배당수익률은 0.9%에서 1.2%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이나 배당으로 내수에 돈을 풀어 환류세를 면제받은 기업들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을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31%에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다만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인 경우 배당을 10%이상 늘리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120%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을 3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조건에 해당되는 고배당 성향의 주식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질 전망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나 내부 유보가 과도하게 높았던 일부 대형 우량주의 배당 상향 기대로 장기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누진세율 부담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이 연말에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했던 행태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미정·강인효 기자 mjk@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목적	가처분소득증가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
적용 시기	2015년~2017년	2015년~2017년	2015년~2017년
적용대상	(1)3년 임금증가율 〈 당해 임금증가율 (2)상기근로자수 직전연도 대비 증가	(1)시장평균 배당성향/수익률의 120%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2)시장평균 배당성향/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1)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 방식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분리과세)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종합과세)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1) 투자를 포함한 과세 (2)임금증가, 배당액 등을 기준
기타	-	(1) 현금 배당 한정. 중간배당 제외 (2) 개인주주에 대해서만 적용	-

※ 출처: 기획재정부, 신한금융투자

패널티 방식…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패널티 형식의 정책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사내유보금 10% 추가 과세
> 기업 업종별 적정수준 달라
> 조세회피 등 부작용만 확산
> 외국인 투자자 배당압력 높아
> 자금 해외유출 땐 경제 타격

△패널티 방식의 배당 강화정책 부작용 우려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센티브 형식의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패널티 형식의 정책은 부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배당 확대가 필요하다면 주주들이 기업에 배당을 확대하라고 주주권 행사를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이 부작용이 적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수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의 배당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배당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지만 패널티 형식의 배당확대 정책은 오히려 상당히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쉽게 말하면 기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기준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과 업종별로 적정 수준이 다른데 일률적인 잣대를 통해서 기업이 적정 수준으로 배당 또는 투자를 하게 만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황 연구원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조세회피 노력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상 효용성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기업 소득을 가계 쪽으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배당 확대 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디자인”이라며 “배당 확대를 꺼낸 것은 기업 소득을 가계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대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세제혜택을 줘서 주가를 띄우겠다는 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추진하면서 가계소득·민간소비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꺼내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반 개인들보다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것이 선 소장의 설명이다.

배당을 확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배당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배당 강화로 기업에서 가계로, 다시 가계지출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게끔 돈이 흐르도록 하자는 게 이번 정책의 기본 메커니즘이지만, 외국인에게 배당하는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계 투자자의 비중이 20~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오히려 배당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임금인상이나 고용률 증가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세금을 줄일 목적에서 임금인상이나 고용창출, 배당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조승예·황윤주 기자 sysy@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작년 30대그룹 41조6588억 벌어 8조4178억 현금배당

주요 기업 최근 4년 배당액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삼성	순이익총계	19,300,870	13,889,840	24,358,265	18,607,841
	배당액총계	2,909,567	2,069,082	2,333,723	2,915,234
현대차	순이익총계	10,180,034	10,351,114	11,849,798	13,212,112
	배당액총계	920,308	1,080,769	1,162,314	1,193,289
SK	순이익총계	3,549,377	4,436,947	2,820,884	905,463
	배당액총계	1,079,935	1,142,486	1,208,243	1,184,811
LG	순이익총계	4,029,036	1,571,954	2,022,110	1,952,657
	배당액총계	911,342	663,556	602,872	668,616
롯데	순이익총계	2,006,556	1,759,203	1,598,564	1,240,633
	배당액총계	101,958	110,602	89,233	90,799
포스코	순이익총계	4,430,151	3,397,523	2,862,281	1,694,632
	배당액총계	799,653	806,824	667,523	682,353
현대중공업	순이익총계	3,732,277	2,241,378	1,295,317	310,940
	배당액총계	503,167	295,499	193,771	149,413
GS	순이익총계	1,079,448	791,715	339,166	-538,904
	배당액총계	214,276	205,541	176,152	167,612
한진	순이익총계	970,727	-1,366,834	-658,202	-1,015,785
	배당액총계	93,765	6,250	6,250	1,824
한화	순이익총계	1,086,025	1,116,016	716,687	544,104
	배당액총계	321,819	297,386	264,595	181,323
KT	순이익총계	1,326,579	1,362,009	815,843	-273,503
	배당액총계	486,602	493,013	510,594	225,248
두산	순이익총계	596,932	391,437	-591,682	-7,501
	배당액총계		68,308	142,887	149,778
신세계	순이익총계	1,228,540	3,745,532	562,166	563,617
	배당액총계	52,300	39,282	63,353	62,207
CJ	순이익총계	836,443	892,626	636,505	432,217
	배당액총계	78,952	59,232	59,932	62,671
LS	순이익총계	285,923	204,585	287,026	246,684
	배당액총계	78,636	71,094	84,772	77,206
대우조선해양	순이익총계	743,632	743,177	137,026	251,718
	배당액총계	94,523	94,523	47,262	56,714
금호아시아나	순이익총계	591,081	328,311	-147,436	-97,448
	배당액총계	23,007	55,948	55,948	41,999
동부	순이익총계	-34,045	-121,181	400,563	-155,170
	배당액총계	76,522	70,640	88,035	79,123
대림	순이익총계	154,060	149,916	451,133	171,195
	배당액총계	4,050	4,050	19,490	4,050
현대	순이익총계	896,111	-464,359	-1,041,400	-816,311
	배당액총계	147,029	86,080	67,427	72,144
OCI	순이익총계	707,142	801,773	-55,006	-381,865
	배당액총계	87,424	63,498	20,317	11,077
에쓰오일	순이익총계	710,066	1,192,426	580,015	289,306
	배당액총계	291,147	558,915	308,611	154,935
현대백화점	순이익총계	437,499	557,198	470,072	554,951
	배당액총계	42,130	44,529	44,449	44,452
효성	순이익총계	2,007	-166,381	127,380	-389,711
	배당액총계	83,172	66,538	66,538	66,538
대우건설	순이익총계	-813,601	226,757	159,399	-743,608
	배당액총계				
동국제강	순이익총계	200,275	28,802	-251,647	-95,385
	배당액총계	51,071	48,800	33,918	18,023
영풍	순이익총계	620,781	784,327	792,410	573,881
	배당액총계	7,405	18,408	14,161	16,917
미래에셋	순이익총계	142,225	101,139	136,169	68,585
	배당액총계	30,857	20,622	41,277	14,448
코오롱	순이익총계	154,717	238,091	146,800	38,269
	배당액총계	38,076	48,639	37,475	25,024

대기업 상장사 얼마나 벌고 얼마나 풀었나

10대그룹 평균 배당성향 17.7%
삼성전자 14.8% 현대차 9% 그쳐
현대중공업 48.1%로 가장 높아
GS·동부그룹은 적자에도 배당

현대유엔아이 등 비상장 자회사
오너일가에 거액 배당금 안겨줘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배당 이슈가 본격화된 가운데 배당에 인색했던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이 전체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들의 배향성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그룹의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41조6588억원으로 그중 8조4178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이들 전체의 배당성향은 20.2%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691개사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440개사의 배당성향 21.09%(11조6000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 비율로, 벌어들인 순이익에 비해 얼마나 주주들에게 배당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삼성·현대차·롯데…배당성향 20%에도 못 미쳐=지난해 10대그룹의 평균 배당성향은 17.7%로 전체 배당성향 21.09%에 크게 못 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조157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지만 삼성그룹의 상장사 배당성향은 14.8%에 그쳤다. 지난해 19조6890억원을 상장사를 통해 벌어들였지만 이 중 2조9164억원만 배당했다. 배당수익률은 0.80%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은 배당성향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상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13조3246억원 중 1조2039억원을 현금 배당해 배당성향이 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핵심 계열사가 비상장사로 이뤄진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등 상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은 1조3467억원으로 이 중 배당은 967억원에 그쳤다.

10대그룹 중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현대중공업으로 48.1%를 기록했다. 이는 벌어들인 금액의 절반가량을 배당한 것으로 당기순이익 3109억원 중 1494억원으로 배당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의 계열사가 6824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40.3%를 기록했으며 한화(35.3%), LG(34.2%), SK(32.1%)가 뒤를 이었다.

◇적자배당, 비상장계열사를 통한 배당도 부지기수=반면 적자를 냈음에도 배당을 실시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작년 30대그룹 중 상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를 기록한 그룹집단은 11개에 달했다. 이 중 한진이 1조157억원으로 적자폭이 가장 컸으며 81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현대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금호아시아나, 동부, OCI, 효성, 대우건설, 동국제강, GS, KT, 두산 등이 상장계열사의 순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배당 기조를 이어갔다. GS그룹의 경우 5000억원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1600억원대의 배당을 실시했으며 15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동부그룹은 790억원대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30대 그룹이 상장사를 통한 배당에는 인색한 반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오너 일가에 거액의 배당금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현대유엔아이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장녀 정지이 전무에게 각각 12억원과 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한 효성투자개발의 경우 순이익보다 많은 44억원을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지급했다.

국내 대기업 계열 상장사의 낮은 배당성향과 비상장 자회사의 높은 배당은 결국 상장사 주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감 몰아주기 혹은 내부거래를 통해 비상장사의 매출이 발생하고 결국 상장사의 이익이 비상장사의 이익으로 이어져 그만큼 해당 상장사의 기업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유보금 과세따른 배당 유망주는

배당성향 높은 종목 주목하라

최근 2년 OCI머티리얼즈 1498%·케이피에프1178% 현금배당

SK이노·두산重 잠재적 배당주 꼽혀
인탑스·KT&G·기업銀 눈여겨볼 만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까지 더해지며 상장사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배당 유망주는 어느 종목일까?

우선 과거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 비율인 배당성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은 향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와 키움증권에 따르면 과거 2년간 배당성향이 50% 이상인 종목은 OCI머티리얼즈로 지난해 배당성향은 1498.76%에 달했다. 이어 케이피에프(배당성향 1178.19%), 한화케미칼(257.72%), 동화약품(193.23%), 동국S&C(155.31%) 등이 있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도 일반적이지만 미래에 배당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 역시 잠재적 배당주가 될 수 있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유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적 배당주로 꼽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전년 기준 배당성향 40.86%, 배당수익률 3.11%, 유보율 3309.43%을 기록했다. 이어 두산중공업도 배당성향 107.09%, 배당수익률 2.23%, 유보율 807.49%로 잠재적 배당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두산, 예스코, 태경산업 등이 배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선정됐다.

배당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를 세분화하면 유보율, 현금비율이 높은 종목도 배당 가능성이 큰 상장사다. 유보율 1500% 이상, 시가총액을 현금으로 나눈 현금비율이 50% 이상인 상위 종목은 인탑스로 꼽혔다. 인탑스는 유보율이 8252%이며 현금비율은 65.29%다. 씨케이에이치와 S&T홀딩스, 아세아, 대성합동지주도 유보율 및 현금비율이 높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향후 시장 변화 시에도 배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고 배당수익률이 2%가 넘는 상위 종목으로는 KT&G가 있다. KT&G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6.81%에 달했다. 이어 기업은행(영업이익률 31.22%), 강원랜드(28.51%), 코웨이(26.52%), 동서(25.27%)가 뒤를 이었다.

순이익증가율 또한 배당 확률을 높이는 지표다. 올해 순이익 증가율 30% 이상, 배당성향 40% 이상인 종목은 OCI머티리얼즈(순이익증가율 2776.99%), 아프리카TV(2146.84%), 한화케미칼(1603.49%), 희림(1047.67%), 태평양물산(659.02%) 등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CDI

청담3.0
수시의 기반

가을학기 8월 25일 개강

청담어학원 가을학기 개강 기념 이벤트!!!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진로진학 설계, 청담어학원이 함께합니다.
21세기 인재 양성의 첫 걸음이자 수시의 기초는 아이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청담어학원 개강을 맞이하여 자녀의 역량 진단, 진로 설계에 지표가 되는 GTI*검사를 제공합니다. (1인 1매, 별도 비용 없음)

GTI*검사: 청담러닝이 투자하고 서울대학교 글로벌인재연구센터(GTRC)에서 개발/표준화한 21세기 인재역량 검사

대상: 가을학기 청담어학원 입학시험 신규 응시생
기간: 2014년 9월 30일(화) 까지
참여: 청담어학원 홈페이지 cdi.chungdahm.com
문의: 02-3429-9407

청담어학원

현승훈 회장 외 특수관계인, 화승R&A 34.85% 보유



87 화승그룹

HWASEUNG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그룹은 최근 그룹의 간판 브랜드인 르까프와 결별하면서 3세 경영을 위한 지분 승계에 한창이다. 1978년 미국 나이키사에 주문자표시생산(OEM) 납품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다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도를 낸 화승그룹은 전문경영인의 진두지휘 아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안정적인 3세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차례 부도… 국내 운동화 시장에 따라 부침 겪어 = 화승그룹은 창업자인 현수명 회장이 1953년 부산에서 신발 제조업체인 화승을 설립하면서 출발했다. 하지만 기성화가 고무가 아닌 화학 섬유를 사용한 러닝화로 옮겨가면서 경영난에 처했고 결국 1966년 부도를 냈다. 이후 1978년 미국 나이키사에 주문자표시생산(OEM) 납품을 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1980년 화승으로 상호를 바꾸고 월드컵이라는 자체 브랜드 학생 조깅화를 선보인 데 이어 1986년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출시했다.

화승그룹은 신발 수출을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 재계 20대 대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매출이 1조원이 넘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화승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영난을 겪다가 1998년 2800억원대의 어음을 막지 못해 또다시 부도를 냈다. 화의절차에 들어간 화승그룹은 계열사인 화승상사를 합병하고 화승카파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에 힘입어 2005년 화의에서 벗어났다. 이후 운동화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 유통업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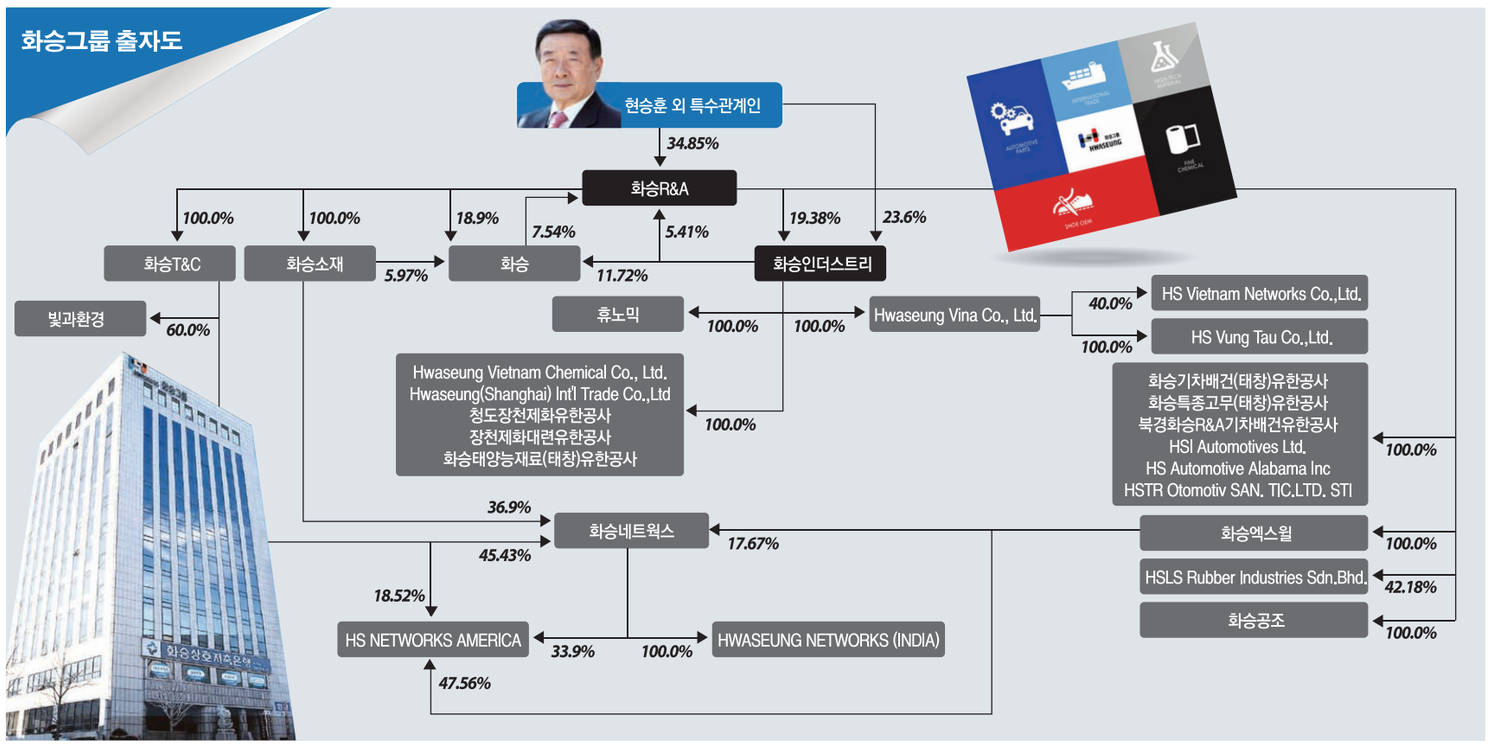
현수명 회장의 장남 현승훈 회장은 1976년 화승의 전신인 동양고무산업에 입사했고, 부친이 타계한 1977년 이후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현 회장의 장남인 현지호 총괄부회장은 지난 2011년 총괄부회장으로 승진해 그룹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현 회장의 차남인 현석호 부회장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실질적 지주회사 화승R&A = 화승그룹은 국내 계열사 중심의 화승R&A와 해외법인을 산하에 두고 있는 화승인더스트리 투톱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동차 부품 사업의 수직계열화 과정에서 현 총괄부회장이 화승R&A의 지분율을 크게 늘렸고, 화승R&A를 통해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화승그룹은 화승R&A가 정점에서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승R&A가 화승(18.9%), 화승인더스트리(19.38%), 화승T&C(100%), 화승소재(100%) 등을 지배하고 있다.

화승R&A의 사업은 자동차 부품(Weather Strip, Hose류)과 원재료인 CMB·TPE·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소재 부문, 종합무역 부문 등으로 나뉜다. 연간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732억원 수준이다. 회사는 작년 자동차 부품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위해 관계회사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화승T&C지분을 늘려 100% 자회사로 편입했고 비주력 사업의 계열정리를 위해 화승비나, HS Vietnam Chemical 지분을 관계회사인 화승인더스트리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화승T&C가 보유하던 화승R&A 지분 14.6%를 현 총괄부회장에게 매각해 현 총괄부회장의 지분이 2.3%에서 16.9%로 증가했다.

현재 화승R&A의 최대주주는 118만8909주(18.42%)를 보유한 현 총괄부회장이다. 현 회장은 115만6890주(17.92%)를 보유하고 있고 화승(7.54%), 화승인더스트리(5.41%) 등이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19.38%를 보유한 화승R&A가 최대주주로 있으며 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23.6% 가지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실질적 지주사 역할… 인더스트리·T&C·㈜화승 등 전체 계열사 지배
R&A 중심 수직계열화 과정서 현지호 총괄부회장 최대주주로 올라
창업이래 2차례 부도…운동화 외 車부품·유통업 등 사업다각화 모색

다음 회는 다우기술그룹

화승, 신발끈 다시 매고 '3세경영' 속도

현승훈 회장 자녀 지호·석호 부회장, 각각 R&A·인더스트리 담당
그룹서 분리 ㈜화승은 경일에 매각…공채 출신 고영립 회장 경영

화승그룹은 현승훈 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현지호 총괄부회장과 차남인 현석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인더스트리를 현지호 부회장과 현석호 부회장이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특히 화승그룹이 자동차 부품과 종합무역,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화승과의 결별이 3세 경영 체제와 맞물리면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화승그룹은 3세 지분승계를 위해 오너 일가가 직접 계열사로부터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화승R&A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화승R&A→㈜화승→ 화승T&C→화승R&A로 이뤄지는 소형순환출자 구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 총괄부회장은 작년 12월 화승T&C로부터 화승R&A지분 94만2938주(14.61%)를 사들인 데 이어 ㈜화승으로부터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화승R&A 주식 9만5970주를 매입했다. 이 거래로 현 부 회장의 지분(118만8909주, 18.42%)이 현 회장(115만6890주, 17.92%)의 지분을 앞서 현 부회장은 화승 R&A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3세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계열사 대표 인사도 단행했다. 현 총괄부회장은 주력계열사 중 화승R&A와 종합무역회사인 화승네트웍스를 맡고, 현석호 부회장은 정밀화학업체인 화승인더스트리와 화승비나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전문경영인으로 화승그룹을 이끌어 오던 고영립 총괄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화승그룹 공채 1기 출신으로 30년 만에 회장까지 오른 고 전 회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17개 계열사를 6개로 줄이는 어려움을 겪은 화승그룹을 연매출 4조원대의 기업으로 도약시킨 전문경영인이다. 고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지난해 말 화승그룹으로부터 분리된 ㈜화승의 경영을 맡는다. ㈜화승의 지분 절반 이상을 화승그룹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일은 고 전 회장의 아들 고희광씨가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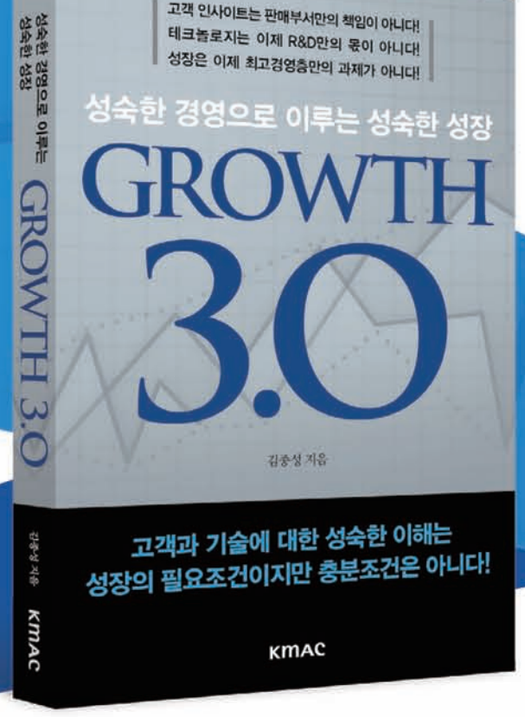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1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2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3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4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GROWTH 3.0
김종성 지음 | 값 15,000원

●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중! 다부수 구매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Tel 02-3786-0184 / Fax 02-3786-0107 / njh@kmac.co.kr

KM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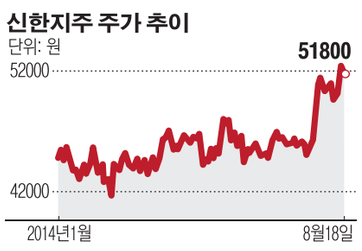
‘변곡점’ 은행株 “길~게 봐라”

금리인하에 수익성 악화 우려… 전문가 “내수활성화로 장기적 호재” 전망

고공행진을 하던 은행주가 금리인하라는 변수를 만났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을 떨어드려 수익성 악화를 가져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NIM 하락은 단기적 이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가 결국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8일 은행주들은 동반 약세를 보였다. 기업은행(-3.19%), 우리금융(-179%), 신한지주(-1.15%), KB금융(-0.24), 하나금융지주(0.72%) 등은 전일 대비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 최근 은행주들은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팀) 개막으로 경기 부양책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우리금융, 신한지주 등은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곧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향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라 은행주가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NIM 하락 우려감이 현실화되며 은행주 주가는 약세로 돌아섰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NIM이 줄어들어 은행들의 순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말 기준 8개 상장은행의 이자수익부 자산이 1124조원이고 분기 이자이익이 5조원임을 감안할 때 만약 2~3bp 하락할 경우 최대로 줄어들 수 있는 이자이익은 2248억~3372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상장은행 순이익 7조9000억원의 2.1~3.2%에 불과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이미저도 다른 변수가 고정돼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출성장률이 회복될 것을 감안하며 예상되는 이자이익 감소폭은 추정치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진원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NIM 악영향은 5bp 이내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대출 증대 등이 금리인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미정 기자 mjk@

“코스피 박스권 탈출 중국 수출에 달렸다”

“올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느냐는 대중국 수출의 개선 여부에 달렸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8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유가증권 시장 중소형 및 신규 상장법인 합동 IR 설명회’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센터장은 “지난 2011년 이후 횡보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최대 약점은 수출 횡보와 그에 따른 기업 이익의 정체에 있다”면서 “하반기 증시 상승은 향후 수출 증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은 다른 나라 경기에 달려 있는데, 미국은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현재 회복 중이다”며 “유럽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에 대한 원동력으로 미국 경기 위축으로 유럽도 위축됐지만, 미국이 살아나면서 유럽도 살아나고 있어 선진국 경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조 센터장은 한국 수출이 강하게 반등하는 데 있어 선진국의 경기 호전은 호재지만, 여전히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수입이 부진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이머징 국가의 중국향 수출이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수입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개선 여부와 시기가 하반기 증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세금혜택

내달부터 증권사·선물회사 등 연계상품 거래시 수수료 환급

증권사나 선물회사 등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들이 다음달부터 연계상품 거래소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부터 시장조성자를 맡는 거래소 회원 증권사나 선물회사들에 대해 연계상품 거래 시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를 일부 되돌려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같은 혜택은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 전까지 제공되며 내년에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조성자는 헤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시장조성자는 파생상품시장에 매수 호가를 제공할 때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현물주식을 매도하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조성자가 헤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0.3%)가 부과됐다.

최근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세금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투자업계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개별주식 선물·옵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 비중은 전체 파생상품의 약 77%를 차지하는 등 시장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경우 시장 조성자의 참여가 활성화되며 시장 역시 커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증권사에서 파생영업을 담당하는 익명의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 만큼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매수·매도 호가를 소극적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며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헤지 비용이 없어지면 시장조성자가 좀 더 다양한 매수·매도 호가를 낼 수 있고, 이는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혜택 범위에 관심을 쏟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역할 확대에 나설 경우 리스크나 비용 부담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증권거래세 감면 범위는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량(헤지를 위해 현물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대금)의 100~103%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조성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시장조성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일부 환급함으로써 수입을 나누는 인센티브도 다음 달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에 선정한 회원사에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조성자 자격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3개월 단위로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한투운용 “日 가치주에 투자하세요”

노무라일본밸류 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8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일본의 가치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노무라일본밸류 증권펀드(주식-재간접)’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본 및 아시아 최대 규모인 노무라자산운용의 일본 주식 선정 능력이 가장 잘 반영된 ‘노무라 일본 전략적 가치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펀드는 도쿄거래소 토픽스(TOPIX) 지수의 3700여개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가치주를 선별하고, 이중 업종에 관계없이 저평가돼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높고 유동성이 검증된 200여개의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채널영업본부 김범수 팀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우디 통화청 등 해외 기관투자자의 일본 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수급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일본 최대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일본 증시의 상승여력이 높아 매력적 투자처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 노무라일본밸류 증권펀드’는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문선영 기자 moon@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유치경쟁 치열

증권사들이 연금저축계좌 유치를 위한 이벤트에 속속 나서는 등 연금저축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7월 30일 기준) 총 5230억원이 연금저축펀드로 순유입됐다. 전체 주식형 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신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자가 단일 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한 운용사가 내놓은 펀드 안에서만 갈아탈 수 있었지만 신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되면서 계좌에 편입된 펀드 내에서 여러 운용사의 상품을 별도의 제한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이에 증권사 역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며 연금저축계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말까지 타사로부터 계약 이전한 고객 및 신규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시장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고객 유치에 여념이 없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계좌 상품에 신규 가입, 계약이전 또는 추가 납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연금저축 드림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지난달 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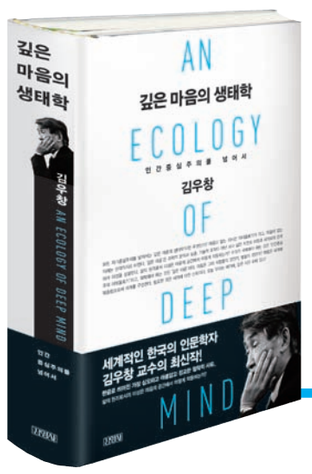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증권사에 장기 투자상품인 연금저축계좌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당분간 연금저축시장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선영 기자 moon@

김영사

“마음은 그대 사람들의 것인가, 별들의 것인가?” 모든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깊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석학 김우창의 강철 같은 사유가 펼쳐내는 깊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탐구!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 지식, 눈부신 통찰을 통해 동서양 최초로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치다. 한글로 씌어진 가장 심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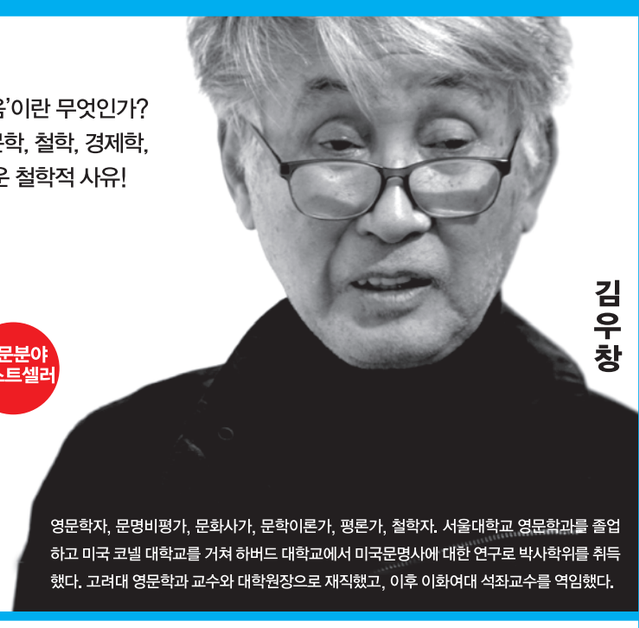


김우창
양장 | 516쪽 | 27,000원

깊은 마음의 생태학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 인 간 중 심 주 의 를 넘 어 서 | AN ECOLOGY OF DEEP MIND



김우창

영문학자, 문명비평가, 문화사가, 문학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문명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TEL: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국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의 최신작!

인간의 이성과 마음, 자연과 세계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김우창 교수의 사유 세계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가 서로 비추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장이며, 우리의 궁색한 생각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어준 통찰의 등대이다.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선생의 주옥같은 글들은 한글로 쓰여지는 글로서 이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도 최고의 수준이다.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 이 땅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독자들이라면, 김우창이라는 산을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문광훈**(충북대 독문과 교수)

국경 넘은 '대한전선 인수전'

중국·유럽 기업도 '눈독'… 내달 15일 예비입찰 마감 숏리스트 선정

대한전선 인수전에 유럽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도 관심을 보이며 인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매각자측에서는 우발채무와 관련된 조건을 인수자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논의중이라 예비입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19일 고압전선 및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유럽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이 매각 주간사와 비밀유지협정(CA)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I 몇 곳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한전선 매각 주간사와 CA를 체결하고 IM(투자안내서)를 받아간 곳은 2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이미 언급된 국내 기업들도 있고, 해외기업과 FI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선 매각 주간사인 하나대투증권과 JP모건은 오는 9월 15일 예비입찰을 마감하고 숏 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전실사는 숏 리스트가 나오면 데이터룸을 공개해 실시하게 된다. 이후 10월 말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대한전선이 매물로 나왔을 때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당시 유력 인수후보였던 현대중공업과 SM그룹, LS전선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기업들과 FI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대한전선 인수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우발채무와 관련된 조건도 인수자에 유리하게 변경될 것으로 알려져 예비입찰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 주가 추이
단위: 원
최고 2500
최저 1850
2250
1900
2014년7월
8월

대한전선은 실적을 보면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에 진입했고 향후 턴어라운드가 완료돼 실적이 정상화될 경우 수익성 지표인 에비타(EBITDA: 감가상각전 영업이익)가 1000억원 이상 창출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발부채다. 현재 대한전선은 우발부채 대부분을 해결하고 약 3000억원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우발부채 대부분은 PF 보증으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 때문에 대한전선과 채권단은 이를 인수자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투자금융(IB) 및 금융계 관계자에 따르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딜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매각자측에서 보상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공시돋보기

아이컴포넌트 주가오르자 워런트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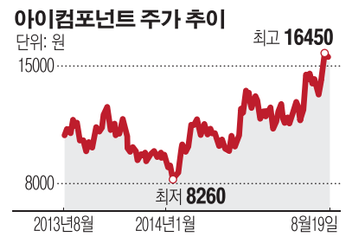
2년만에 24억 챙긴 김양국 대표

김양국 아이컴포넌트 대표가 33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워런트)를 행사했다. 아이컴포넌트 주가는 올해 들어 100%가량 올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일 36만6463주에 대한 워런트를 행사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5.88%에 달하는 물량으로 행사가액은 주당 9005원, 총 33억 규모다. 신주는 오는 9월 4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사된 워런트는 지난 2012년 10월 아이컴포넌트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0억원 규모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일부다. 당시 한국투자증권(20억원), 경기-KT녹색성장투자조합(15억원) 등이 인수해갔으며 발행 직후 36억원 규모의 워런트를 김 대표 및 회사 임직원 4명이 주당 450원에 되사들였다.

김 대표는 주금 33억원 중 30억원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김 대표는 14일 중소기업은행과 보유 중인 아이컴포넌트 주식 60만주에 대한 담보계약을 맺었다. 차입기간은 2014년 8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4일까지다.



김 대표는 이번 워런트 행사로 상당한 평가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워런트 행사가는 9005원, 행사당일 종가가 1만5650원인 점을 감안하면 36만여주에 대해 24억3000만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챙길 수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이컴포넌트 주가는 올해 들어 100%가량 상승했다. 지난 1월 8200원대를 기록한 아이컴포넌트 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꾸준히 올라 지난 8월 13일 1만6450원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2배가량 올랐다.

한편 광학필름 제조업체인 아이컴포넌트의 최대주주는 2분기 말 기준으로 20.33%를 보유한 김 대표이며 임원 및 친인척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우호지분은 21.51%다.

김희진 기자 heejin@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112시스템 구축' 리노스 KT와 손잡고 앙골라로

리노스가 KT와 함께 400억 규모의 앙골라 112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19일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리노스가 앙골라 112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KT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약 41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리노스가 50억~8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앙골라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리노스는 112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112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앙골라 경찰은 최첨단 위치추적 기술과 전자지도, 경찰무선통신연계, 스마트폰 신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민생치안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이 기대된다.

리노스는 지난 2012년 경찰청 '112 시스템 전국표준화 및 통합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조달청과 13억 규모의 112 콜백시스템 구축 계약도 체결했다. '112 콜백시스템'은 통화가 끊어지거나 연결되지 않은 112 신고를 자동으로 콜백(Call-Back)하는 시스템이다.

리노스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공공 재난안전통신용 LTE(PS LTE) 방식으로 정하고,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노학영 대표이사는 "이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참여를 적극 준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글로비스 덕에… 3년새 지분가치 1조 상승

내부거래 해외계열사 포함 80% 훌쩍
탄탄한 실적으로 주가도 41%나 껑충

재벌과 주식 ③ 현대차그룹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오너 일가 지분이 최근 3년새 10%이상 늘어나면서 1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오너가 지분가치 상승분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오너가 재산 불리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 일가 7명(2촌내)이 지분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는 16개다.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를 비롯해 9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의선 부회장은 8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정 회장의 딸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트 전무도 각각 3개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과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각각 계열사 3곳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정 회장 등 7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는 올해 6월말 현재 10조9553억원(상장사=시점 종가, 비상장사=최근 사업연도 순자산가치)으로 지난해말 10조7717억원과 비교해 1836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분 평가금액을 보면 2011년 10조194억원이며 이듬해에는 10조6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오너가 지분 평가액이 9400억원이상 늘어난 셈이다.

개인별로 보면 정몽구 회장은 2011년말 6조6481억원에서 이듬해 7조원까지 육박했지만 지난해 이노션과 현대하이스코 지분이 각각 증여와 병합되면서 올해 6월말 현재 6조6700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은 올해 6월말 현재 3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1년말 3조764억원과 비교해 8000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다른 가족들의 지분 평가액은 200억~1400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 회장 일가의 계열사 지분 가치 상승은 현대글로비스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인 정의선 부회장의 회사 지분가치는 2011년말 2조2952억원에서 2012년말 2조5283억원, 2013년 2조7614억원 등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3조2200억원을 훌쩍 돌파했다. 최근 3년간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가치의 상승분은 9265억원인 셈이다. 이는 불경기에 내부거래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오너가의 지분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 보유 지분 가치

※ 상장사=시점 종가, 비상장사=최근사업연도 순자산가치



(단위: 원)

	정몽구	정의선	정성이	정명이	정태영	정윤이	신성재
2011년말	6조6481억	3조764억	859억	1087억	856억	13억	134억
2012년말	6조9911억	3조3029억	1151억	1090억	865억	44억	151억
2013년말	6조7914억	3조5984억	1413억	1250억	932억	44억	180억
2014년 6월말	**6조6784억**	**3조8942억**	**1413억**	**1250억**	**932억**	**45억**	**187억**
총계	**10조194억** (2011년말)	→ **10조6241억** (2012년말)	→ **10조7717억** (2013년말)	→ **10조9553억** (2014년 6월말)			

현대글로비스의 국내계열사에 대한 내부매출 비중은 2011년 46%, 2012년 35%, 2013년 30%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해외계열사까지 합한 내부매출 비중을 보면 2011년 88%, 2012년 84%, 2013년 7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연도별 영업이익율은 최근 3년간 4~4.5%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평균 3.6~3.8%와 비교해 소폭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올 6월말 종가 기준으로 26만9500원으로 지난 2011년 19만2000원과 비교해 41%가 상승한 상태다. 이는 회사의 탄탄한 실적 행보가 일감몰아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자동차를 넘어 컬처까지
Designed by K
kseries.kia.com

당신은 지금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To be Gentleman or not

K7 2015



K7 (수출명 CADENZA) 미국 J.D.POWER 초기품질조사 1위 : Large Car 부문
*미국 J.D.POWER 초기품질조사란? 미국 J.D. POWER 사의 주관 하에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233개 항목에 대한 초기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가장 높은 가치의 자동차를 선정

KIA
The Power to Surprise

K7 2015 신규사양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레드브라운 인테리어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알로이 휠

Event 8월 K7 구매혜택을 모두 누리세요

개인/개인 사업자 출고 고객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구매지원 : 20만원
·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구매할인권 : 정상제품 30% 할인 /할인제품 추가 10%

※ 자세한 내용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쉽고 편리한 시승 서비스
KIA DRIVING CENTER
■ 전국 15개 센터 운영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
■ 연중 상시 이용 가능 (설, 추석 등 일부 공휴일 제외)
■ 수입차와 비교시승 가능 (일부 센터 제외)
■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예약 가능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및 스마트컨설팅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V6 람다 Ⅱ 3.3 GDI (자동 6단) : 복합 연비 10.0km/ℓ (도심연비 8.4km/ℓ, 고속도로연비 13.1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635kg | 복합 CO2 배출량 178g/km – 4등급 ▷ V6 람다 Ⅱ 3.0 GDI (자동 6단) : 복합 연비 10.4km/ℓ (도심연비 8.7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 배기량 2,999cc | 공차중량 1,590kg | 복합 CO2 배출량 170g/km – 4등급 ▷ 세타 Ⅱ 2.4 GDI (자동 6단) : 복합 연비 11.3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4.4km/ℓ) | 배기량 2,359cc | 공차중량 1,535kg | 복합 CO2 배출량 155g/km – 4등급 • V6 람다 Ⅱ 3.0 LP | (자동 6단) : 복합 연비 8.2km/ℓ (도심연비 6.8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 배기량 2,999cc | 공차중량 1,625kg | 복합 CO2 배출량 166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KIA의 신개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Smart Q Service
원격케어 / 영상진단 / 방문진단 / Door to Door / 긴급출동
(인터넷 예약 : Q.Kia.com)